

2019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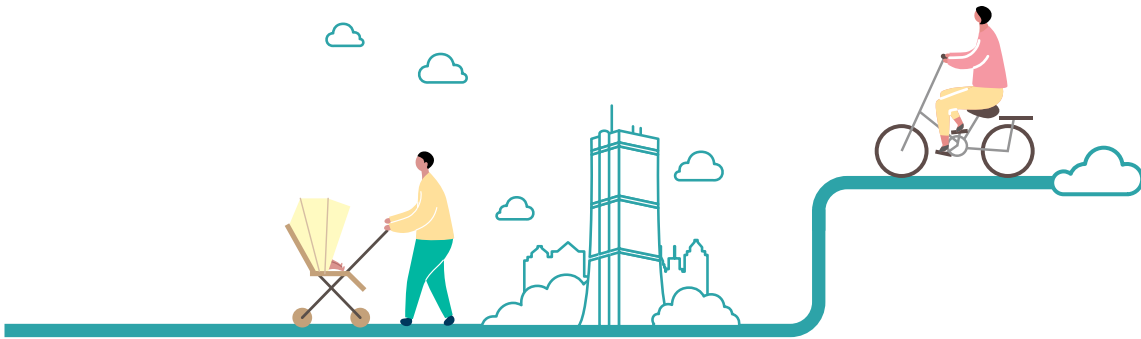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의날입니다

비매품/무료

03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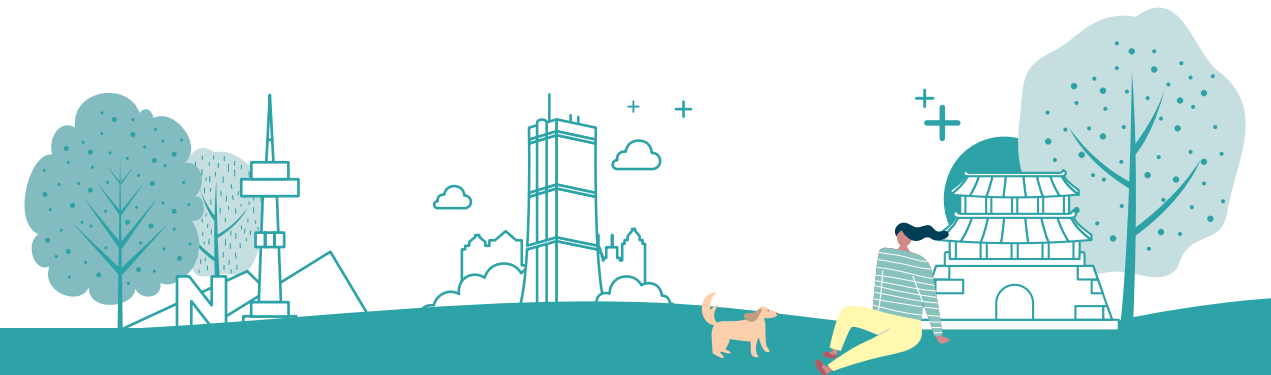
9 791161 617459
ISBN 979-11-6161-745-9



발간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족원의 권리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울시 가족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권금상입니다.

서울시 가족 환경은 다차원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 가까이 사는 서울시는 인구 규모에서 미국 뉴욕과 가장 유사하지만, 인구밀도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귀해지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원수는 2명 내외에 불과하며, 1인가구는 전체 가구 비율 중 31%를 차지하여 점점 단출한 가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혼인율은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5.0%)이나, 합계출산율은 0.7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족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서울시민은 ‘가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선제적인 가족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구성원의 가족위기 예방 및 건강성 유지를 위해 가족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지역의 광역센터로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수행하며 정부의 가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형 가족정책 지형변화 및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성을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서울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연계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 가족환경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혼자살아도 든든한 서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가족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서울시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서울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력이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통해 유익한 시민소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족원의 권리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울시 가족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목차

01 서울시 가족의 현재

- 01 서울시 가족 현황 7
- 0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5
- 0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21
- 0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25

02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01 함께 여가와 성장을 누리는 가족 30
- 02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의 워라밸 38
- 03 즐겁게 일하는 엄마의 워라밸 41
- 04 가족친화적인 일터 45

03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 0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54
- 0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62
- 0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72



04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 0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80
- 0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89
- 03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93

05 혼자 살아도 든든한 서울

- 0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맺기 100
- 02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 105
- 03 맞춤형 경제생활 지원 113

부록

- 0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18
- 02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124

01

서울시 가족의 현재



- 1 서울시 가족 현황
-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01

서울시 가족의 현재



01

서울시 가족 현황

서울시에는 총 9,765,623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에는 2018년 기준 9,765,623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2017년 9,857,426명에서 약간 감소한 것이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서울시에는 여자 4,991,724명과
남자 4,773,899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여성 인구는 2017년 5,027,220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8년 기준 4,991,724명이며, 남성 인구는 2017년 4,830,206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8년 4,773,899명이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서울시의 남녀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는 2018년 기준 95.64%로, 전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통계청, 2019. e-지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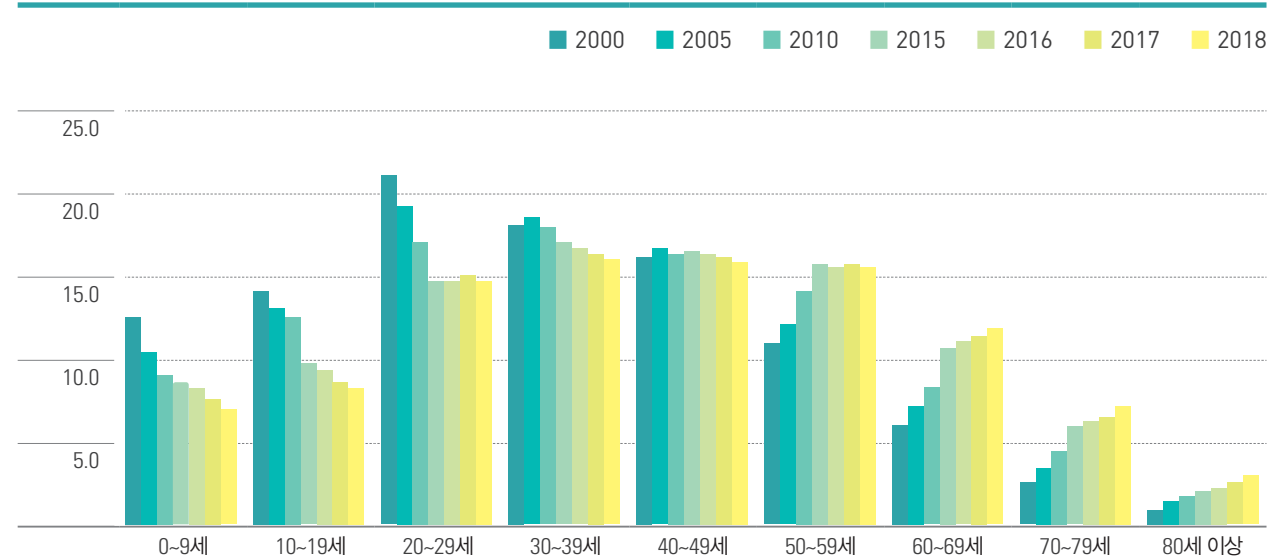
서울시에는 40대 인구가 1,590,374명(16.3%)으로
가장 많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는 40대가 1,590,374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한다(2018년 기준). 다음으로 30대 1,548,770명(15.9%), 50대 1,546,954명(15.8%), 20대 1,449,790명(14.8%), 60대 1,142,415명(11.7%) 순이다(행정안전부,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1980년부터 2005년까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5년 조사부터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연령대별, 연도별 인구 비율

단위: %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서울시에는 3,813,26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가구 수는 2016년 3,784,705가구였는데, 2017년 3,813,260가구로 0.75% 증가 하였다.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수가 다소 감소한 데 비해, 가구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수는 2010년에는 3,504,297가구, 2016년에는 3,784,705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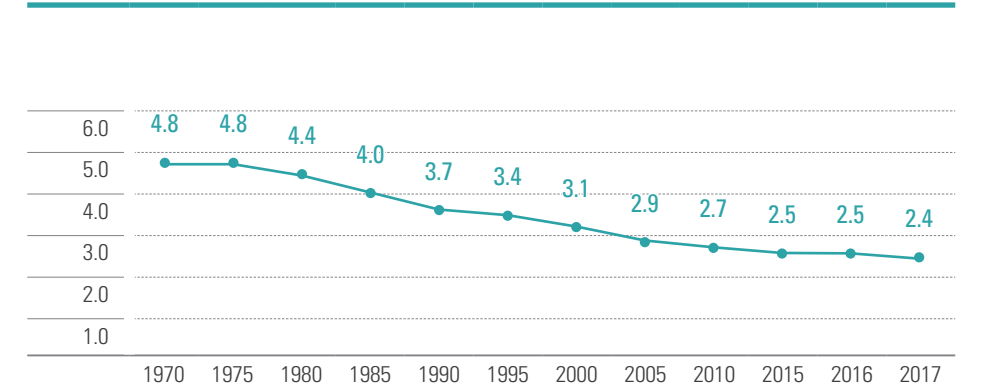
서울시에는 가구당 평균 2.4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5년에 3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0년 2.7명, 2016년 2.5명, 2017년 2.4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변화

단위: 명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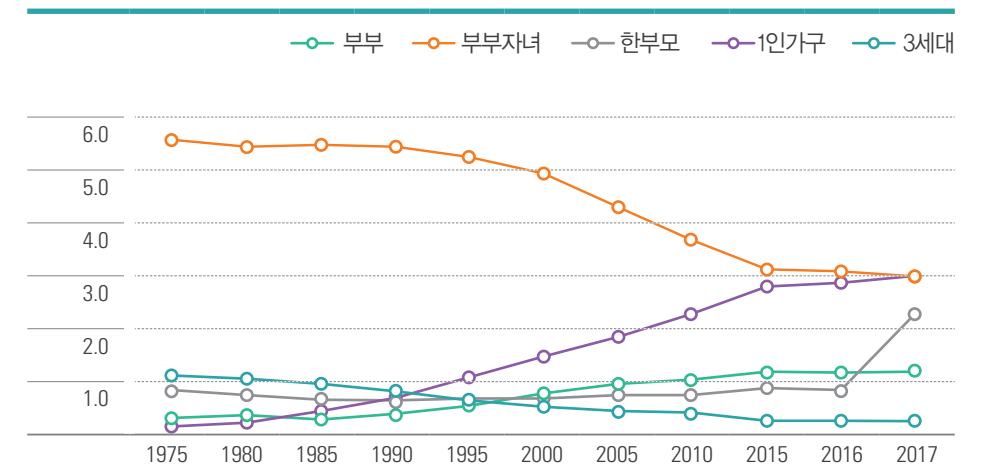
서울시 가구 중에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31.1%), 1인가구(31.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017년 기준 1,184,517가구(31.1%), 1인가구가 1,180,540가구(31.0%)로 가장 많다. 1인가구는 1990년까지는 10% 미만이었으나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부터 30%가 넘었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2017년 기준 523,073가구(13.7%)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 수 변화

단위: %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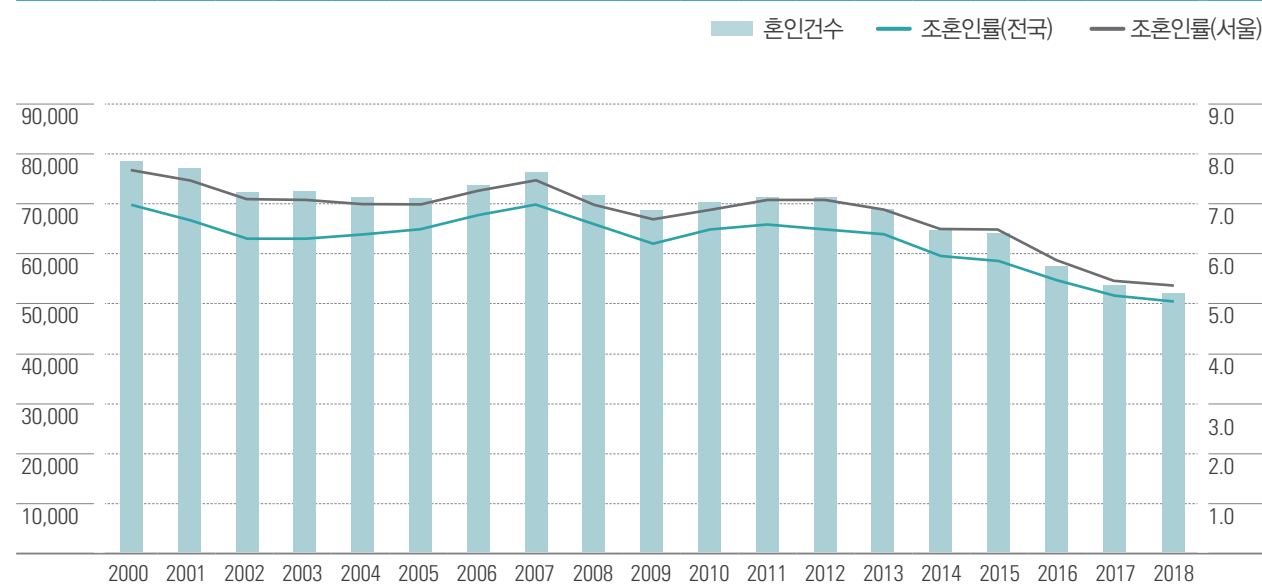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한 해 52,005쌍이 결혼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혼인건수는 1995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52,005건을 기록하였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이 중 초혼은 46,078건, 재혼은 5,729건이다. 서울시의 조혼인율(인구 천 명당 해당연도 혼인건수)은 2017년 5.5%에서 2018년 5.4%로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인 5.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혼인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혼인율 변화

단위: %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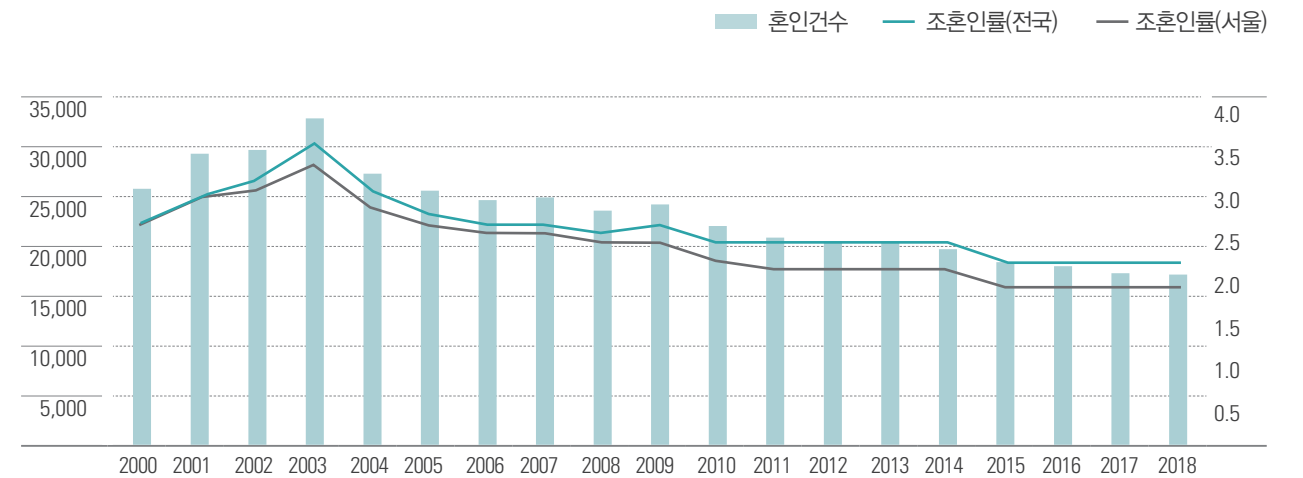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한 해 16,940쌍이 이혼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이혼건수는 2018년 기준 16,940건으로 2017년 17,083건에서 다소 감소하였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서울시의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해당연도 이혼건수)은 2018년 1.8%로 전국 평균인 2.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혼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이혼율 변화

단위: %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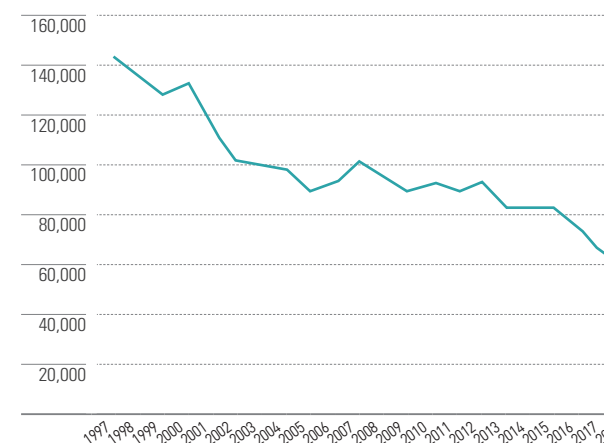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761명입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2000년까지 13만 명 전후였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에 처음으로 8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58,074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그 이후 2015년까지는 1.0명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하락하여 2018년에는 0.761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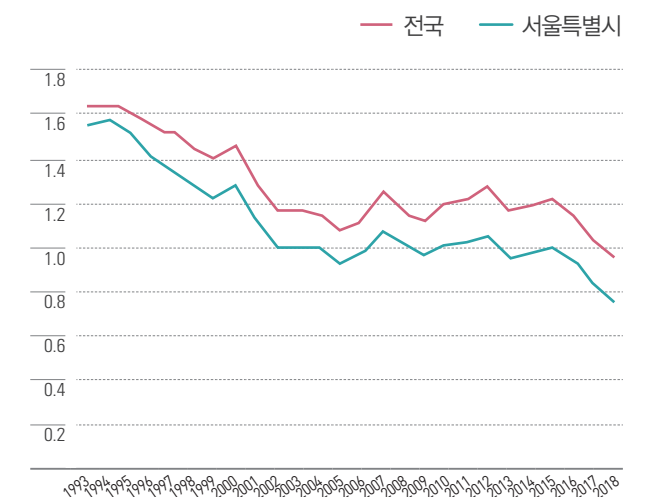
서울시의 출생아수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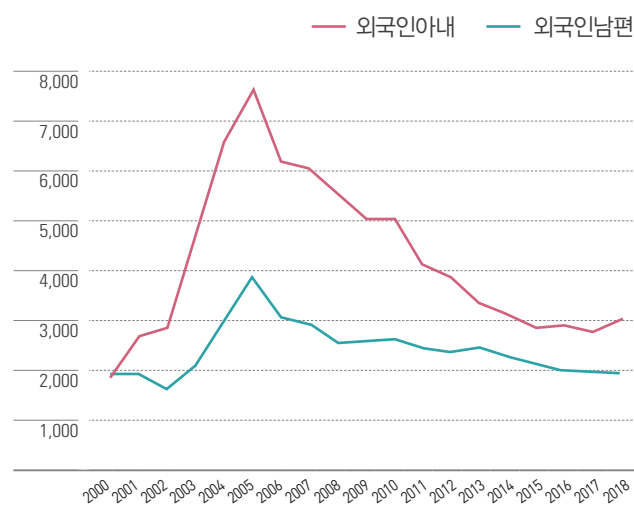
단위: 명



서울시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4,639건이며(2018년 기준),
다문화가족 66,6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2017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4,639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이는 2017년의 4,437건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2018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2,863건이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일본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1,776건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순으로 많다. 서울시에는 2017년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 및 외국인가족) 66,618가구가 살고 있으며, 2016년 69,054가구에 비해 감소하였다(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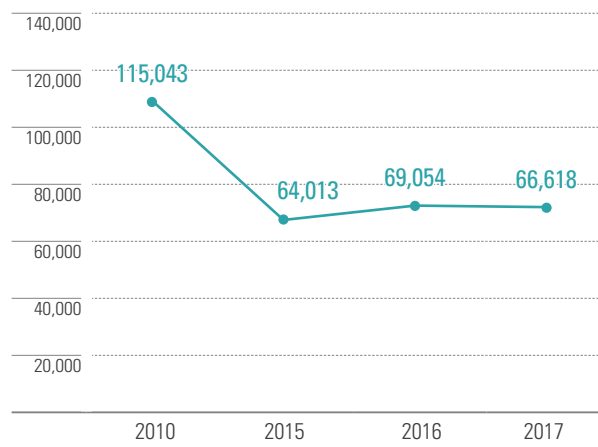
서울시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출처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다문화가구 수 변화

단위: 명



서울과 세계 대도시 인구·가구 통계 비교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서울의 인구·가구통계는
어떤 수준일까?

서울과 인구 규모가 가장 비슷한 도시는 미국 뉴욕

2018년 기준 서울의 인구가 9.8백만이고 뉴욕은 2017년 기준 8.6백만으로 서울이 약 1.2백만 명이 더 많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13.7백만이 사는 일본 도쿄이다. 인구밀도는 서울이 비교 대상 도시인 도쿄, 홍콩, 싱가포르, 뉴욕, 베를린 중에서도 가장 높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약 1.5배, 도쿄의 약 2.6배 수준이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서울은 유소년 인구가 적은 편

연령별 인구는 도시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유소년/미성년 인구(만 14세 미만, 싱가포르는 20세, 베를린은 18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싱가포르는 21~64세, 베를린은 19~64세), 노년 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해 볼 때, 서울은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중 11%로 적은 편이다.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가장 낮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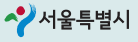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두 가지인데, 먼저 합계출산율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며,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를 말한다. 서울은 비교 대상 도시 중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독일 베를린 1.6명이다.

서울은 고령화율 14.4%로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의 동향은 고령화율(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도쿄의 고령화율이 20.4%로 가장 높으며, 베를린, 홍콩의 고령화율도 각각 19.2%, 17.3%로 높다. 서울은 고령화율이 14.4%로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서울의 평균 가구 수는 3.8백만,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가족의 유형이나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 가구 수와 가구원 수를 보면, 가구 수는 도쿄(6.9백만 가구)에 이어 서울(3.8백만 가구)이 두 번째로 많다.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가구원 수는 싱가포르(3.30명)가 가장 많고, 베를린(1.28명)이 가장 적다. 서울은 2.4명이다.

	인구규모	인구밀도	연령별 인구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서울							
 서울특별시	9.8백만 (2018)	16,136 per km ² (2018)	0~14: 11.0% 15~64: 74.6% 65+: 14.4% (2018)	0.76명/ 조출생률 6명 (2018)	14.4% (2018)	3.8백만 (2017)	2.4명 (2017)
도쿄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13.7백만 (2017)	6,158 per km ² (2015)	0~14: 11.4% 15~64: 68.2% 65+: 20.4% (2010)	1.13명 (2013)	20.4% (2010)	6.9백만 (2015)	1.94명 (2015)
홍콩							
 HONG KONG	7.5백만 (2018)	6,830 per km ² (2017)	0~14: 11.5% 15~64: 71.1% 65+: 17.3% (2018)	1.07명 (2018)	17.3% (2018)	2.6백만 (2018)	2.8명 (2018)
싱가포르							
 SG	4.0백만 (2018)	7,804 per km ² (2017)	0~19: 20.9% 20~64: 66.1% 65+: 13.0% (2017)	1.16명 (2017)	13.0% (2017)	1.3백만 (2017)	3.30명 (2017)
뉴욕							
 NYC	8.6백만 (2017)	10,972 per km ² (2017)	0~14: 17.8% 15~64: 68.7% 65+: 13.6% (2017)	조출생률 13.6명 (2015)	13.6% (2017)	3.1백만 (2017)	2.67명 (2017)
베를린							
 Berlin.de	3.6백만 (2018)	3,944 per km ² (2015)	0~17: 16.2% 18~64: 64.5% 65+: 19.2% (2018)	1.6명 (2018)	19.2% (2018)	2.0백만 (2018)	1.28명 (2018)

1 각 도시의 인구·가구 통계는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처는 아래 링크와 같다. 서울과 싱가포르 인구 규모는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포함하지 않은 규모이며 도쿄, 홍콩, 뉴욕, 베를린은 외국인 수까지 포함한 규모이다.

2 2017: www.toukei.metro.tokyo.jp/tnenkan/tn-eindex.htm
2015/2010: www.metro.tokyo.jp/ENGLISH/ABOUT/HISTORY/history03.htm
2013: <https://knoema.com/atlas/Japan/Tokyo/Total-fertility-rate>

3 2018/2017: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150.jsp?tableID=002&ID=0&productType=8>
2017: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150.jsp?tableID=005&ID=0&productType=8>
<https://www.censtatd.gov.hk/hkstat/hkif/index.jsp>

4 2018/2017: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population2018.pdf>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population/elderly-youth-and-gender-profile/latest-data>

5 2015: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chac/birth/b42_58.htm
2017: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newyorkcitynewyork/>

6 2015 https://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produkte/kleinstatistik/AP_KleineStatistik_EN_2015_B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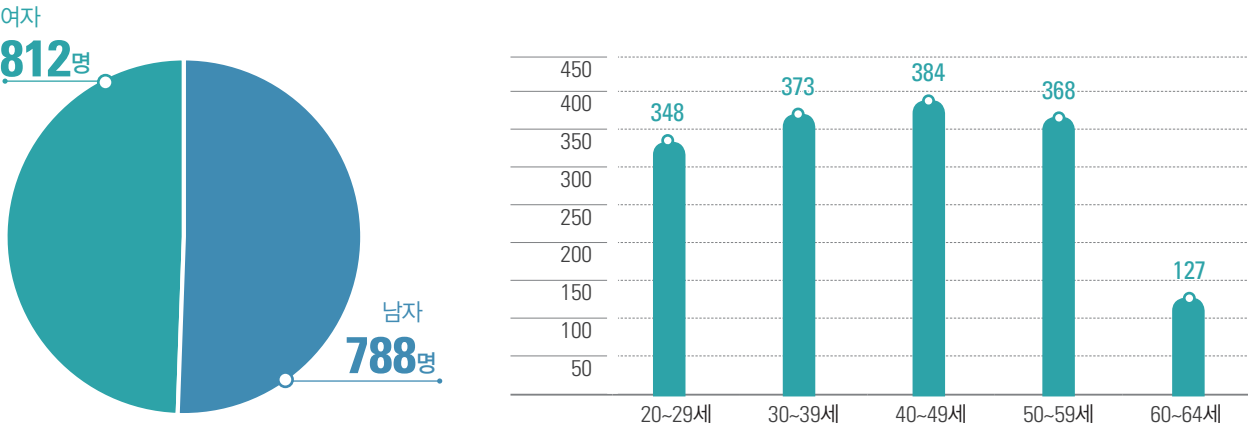
0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2019년 5월, 만 20~64세 서울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남성 788명(49.3%), 여성 812명(50.7%)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만 20~29세가 348명(21.8%), 만 30~39세가 373명(23.3%), 만 40~49세가 384명(24.0%), 만 50~59세가 368명(23.0%), 만 60~64세가 127명(7.9%)이었다.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와 만족도, 가족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특성

단위: 명



1_ 가족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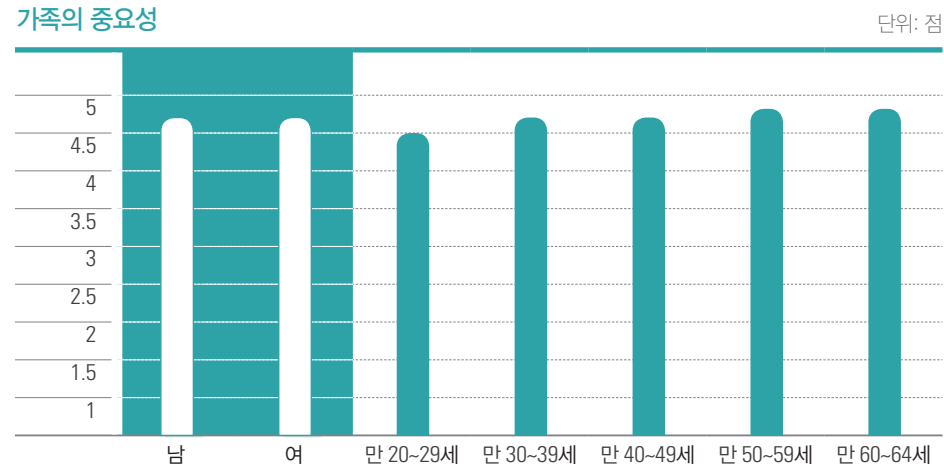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4.72점).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72점으로, 응답자 1,600명 중 76.8%인 1,228명이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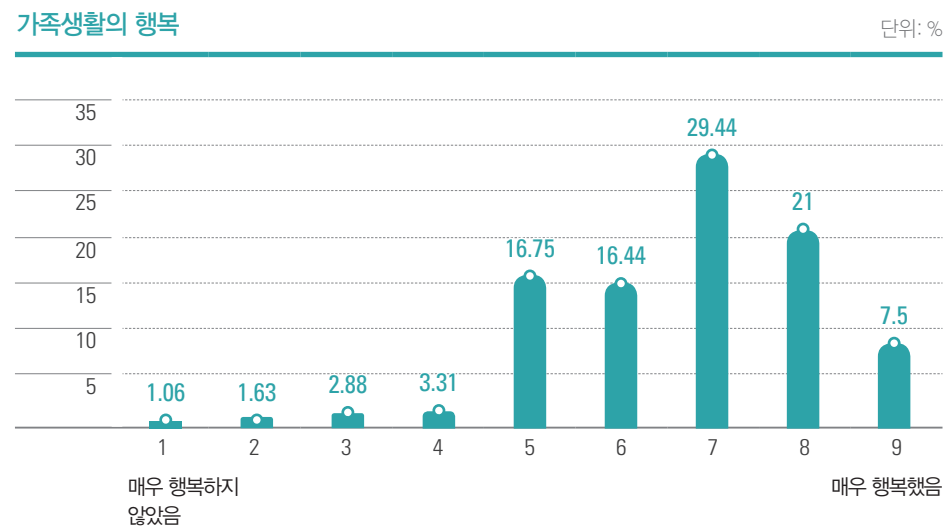
2_ 가족생활의 행복



서울시민은 가족생활이 행복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점 만점에 평균 6.50점)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9점 만점(1점 매우 행복하지 않았음, 9점 매우 행복했음)의 질문에 평균 6.50점으로 행복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7~9점으로 응답하여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_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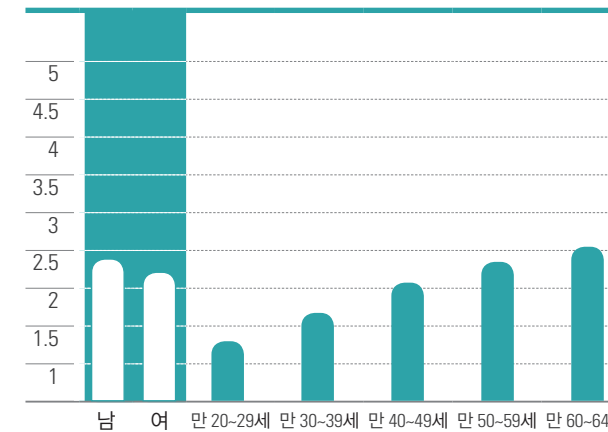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은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 평등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88점)
성역할 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또한 낮은 연령대에서 더 평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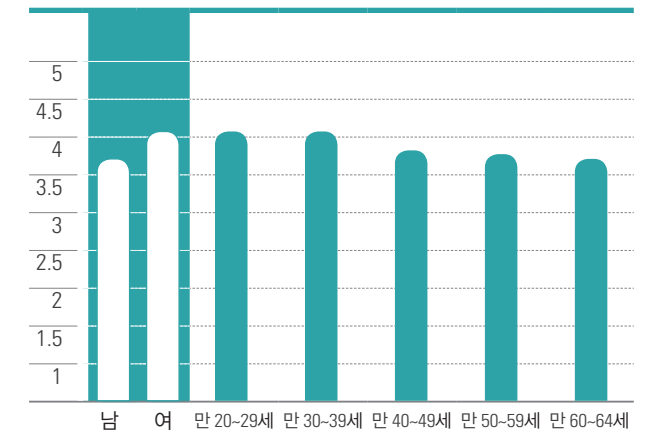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 역할과 평등한 역할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전통적 역할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등 4개 문항, 평등한 역할은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 같이 해야 한다' 등 2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하였다.

전통적 역할에 대해 남자는 2.47점, 여자는 2.33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전통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만 50세~59세, 만 60~65세의 응답자들이 가장 전통적 태도를 보였다. 평등한 역할에 대해 남자는 3.73점, 여자는 4.03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평등한 역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만 20~29세, 만 30~39세가 만 40세 이상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정 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수준



가정 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수준



4_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서울시민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에 대해(5점 만점에 평균 3.56점),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에(5점 만점에 평균 3.41점)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또한 낮은 연령대에서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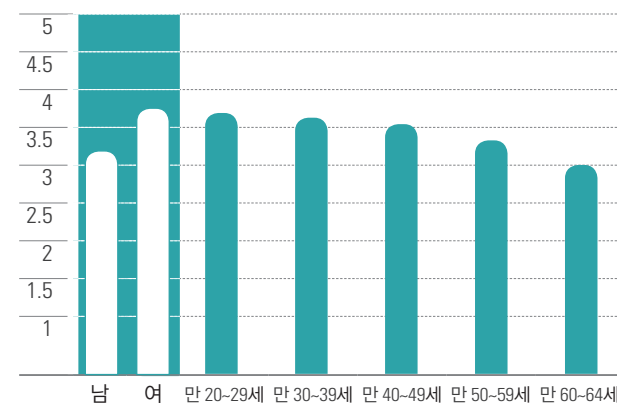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질문 중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 3.56점으로 약간 동의하였으며,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평균 3.41점으로 약간 동의하는 수준이었다. 두 문항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 대체로 낮은 연령대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인 가구들이 공동체(세어하우스)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문항에 대해 3.50점으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고, 특히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88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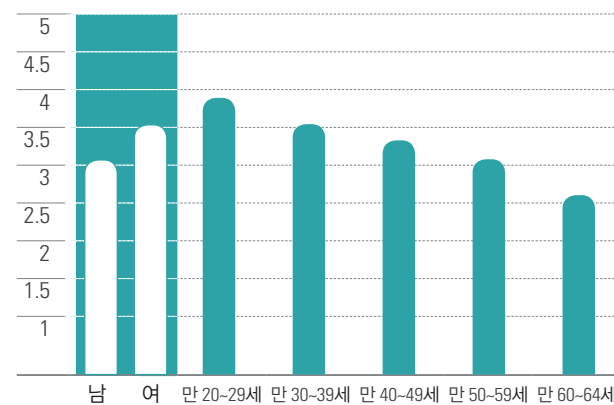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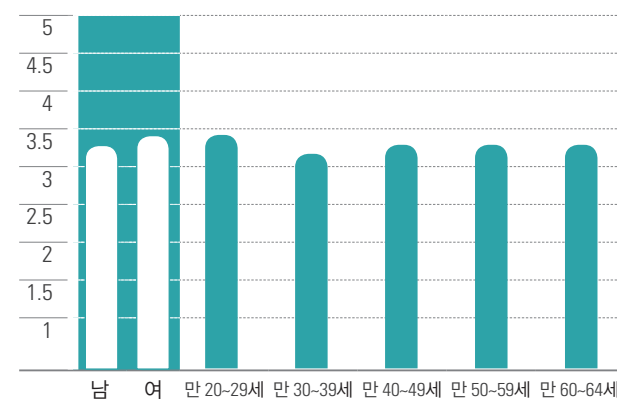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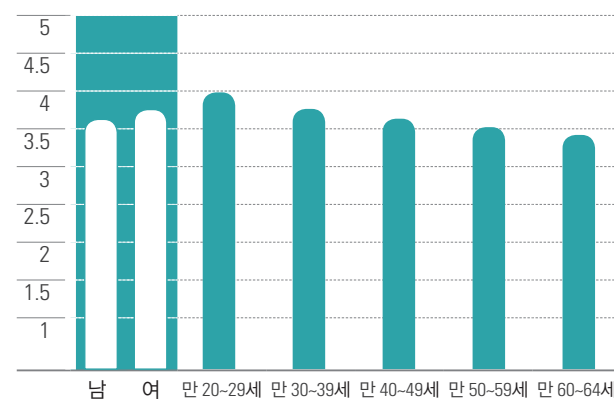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인 가구들이 공동체(세어하우스)를 만들어 사는것도 괜찮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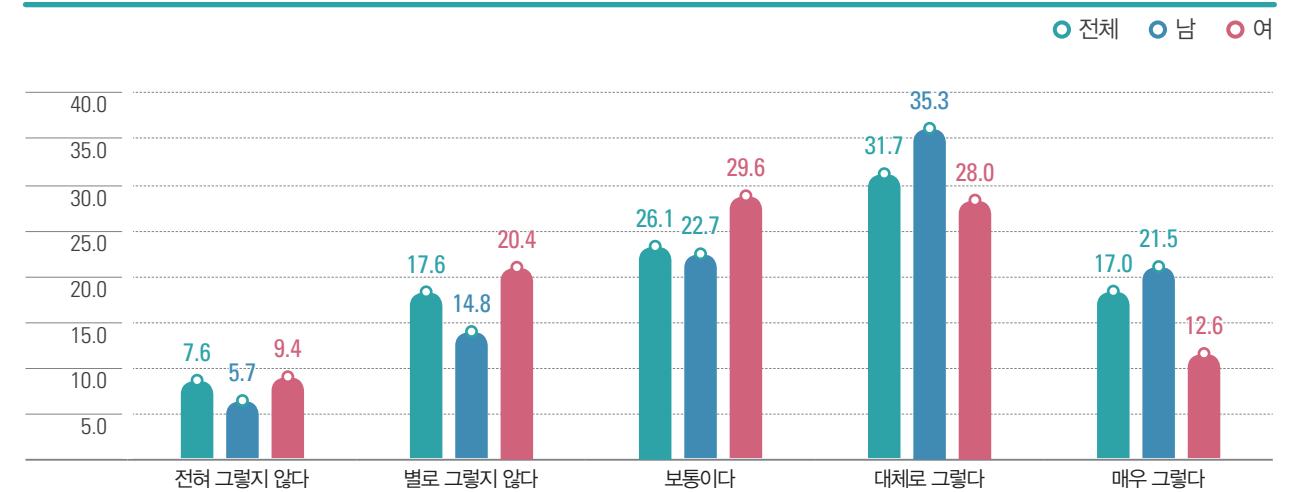
5_ 미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미혼인 서울시민 중 절반은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다. 미혼 여성보다는 미혼 남성이 결혼할 의향이 더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1,600명 중 자신의 상태를 미혼이라고 응답한 635명에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였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40.6%,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56.8%로 미혼 여성보다 미혼 남성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미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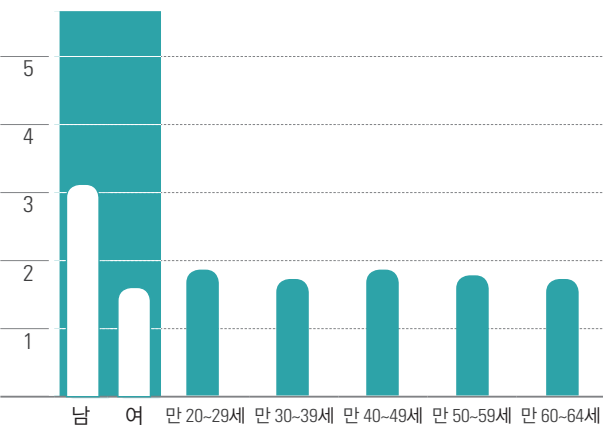
6_ 부모부양에 대한 생각

서울시민은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5점 만점에 평균 2.84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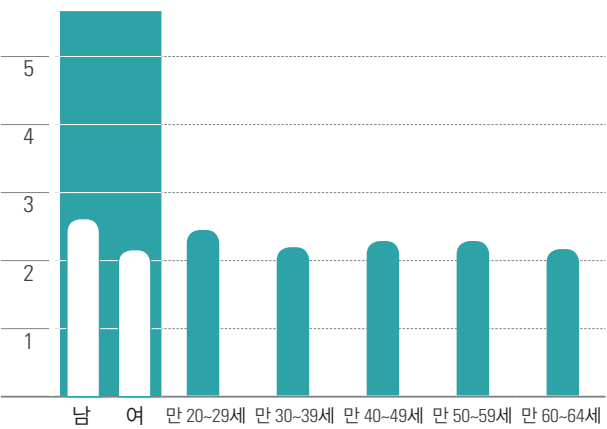
서울시민에게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남자는 평균 3.10점, 여자는 평균 2.58점으로 남자가 더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3.3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고, 남자는 평균 3.54점, 여자는 평균 3.17점으로 이 역시 남자가 더 동의하였다. 경제적 부양과 관련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대가 30대, 60대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모시고 살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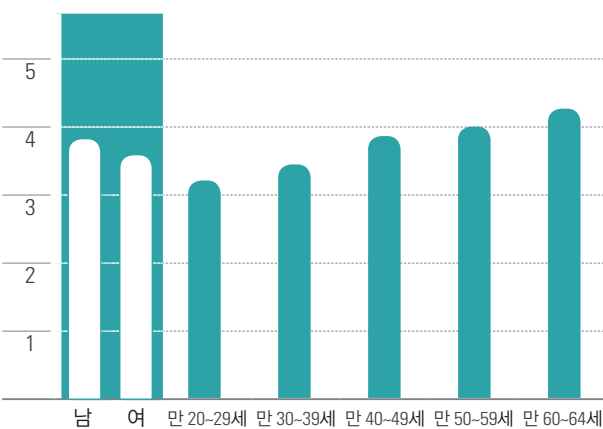
7_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서울시민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69점)
서울시민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20~30대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4.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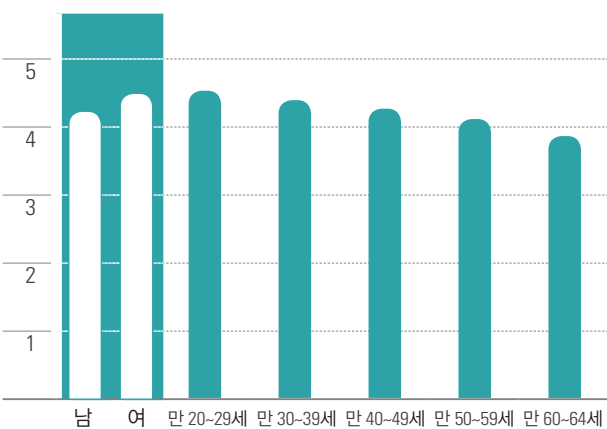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경제적 부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먼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서는 남자가 평균 3.79점, 여자가 평균 3.58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자가 평균 4.10점, 여자가 평균 4.29점으로 여자가 더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 즐거움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 경제적 부담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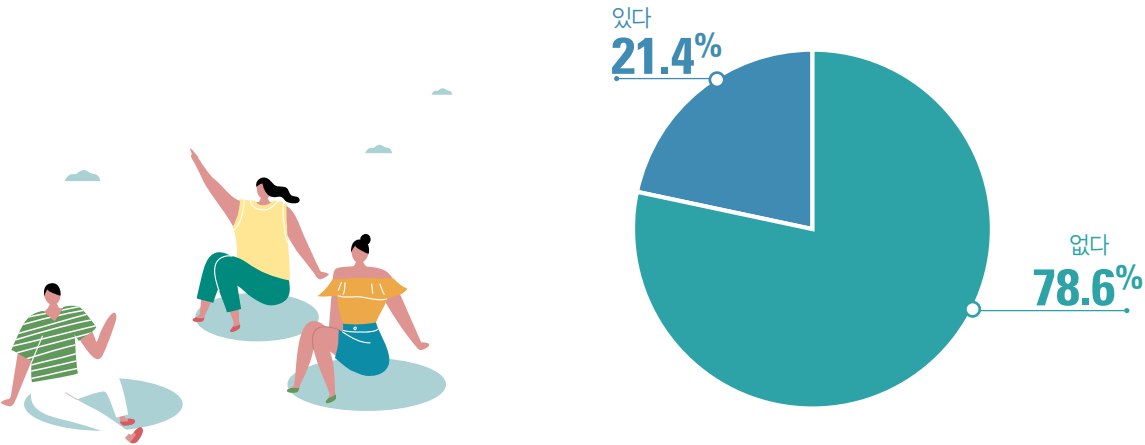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1_ 부부관계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 중 21.4%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1,600명 중 배우자가 있는 911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21.4%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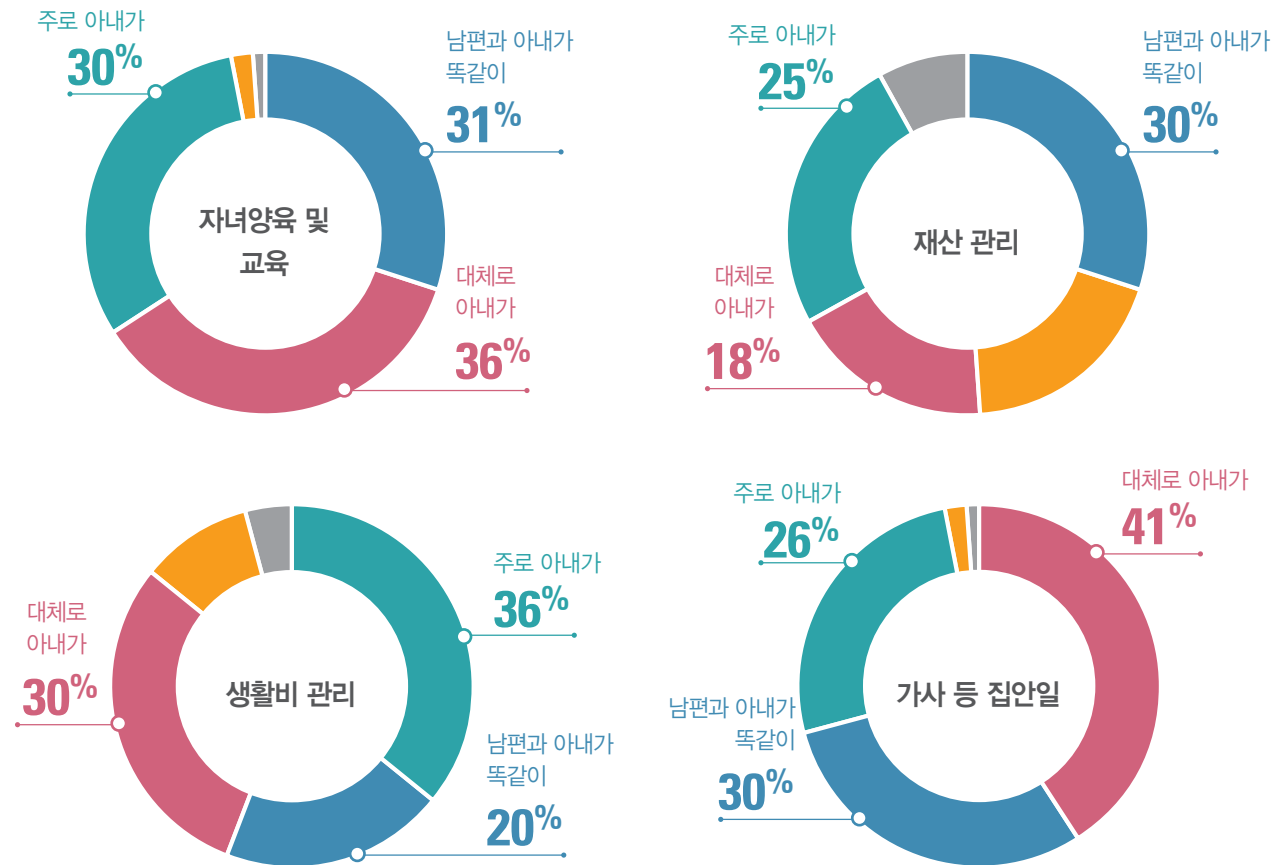
이혼 고민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은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관리, 집안일에 대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정관리를 주로 누가 하는지 질문하였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해서는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30.9%, 주로 아내가 30.3% 순이었다. 재산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25.0%였다. 생활비 관리는 36.6%가 주로 아내가, 30.1%가 대체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아내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사 등 집안일은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41.2%였고, 30.0%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26.1%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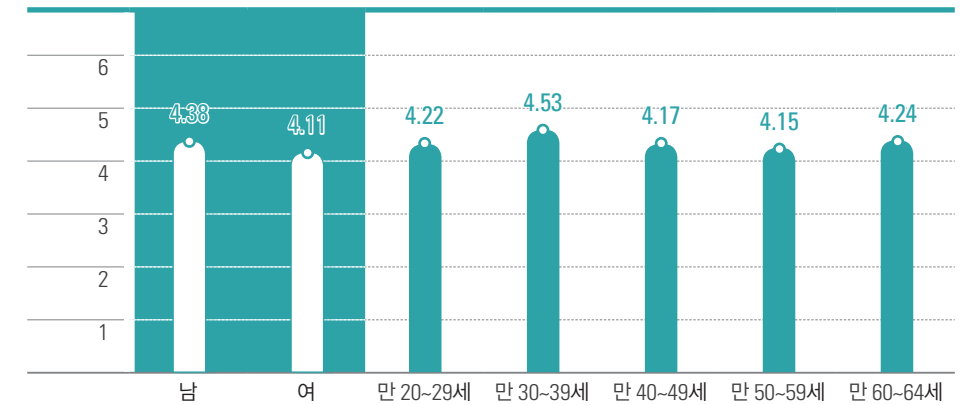
■ 주로 남편이 ■ 대체로 남편이 ■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 대체로 아내가 ■ 주로 아내가



주)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 9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없음'을 선택한 102명을 제외한 809명의 분석결과임.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친밀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6점 만점에 평균 4.24점),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911명에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감, 상호이해 정도 등(4개 문항, 각 6점 만점)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평균 4.38점, 여자는 평균 4.11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0대, 50대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감 점수가 높았다.



2_ 부모자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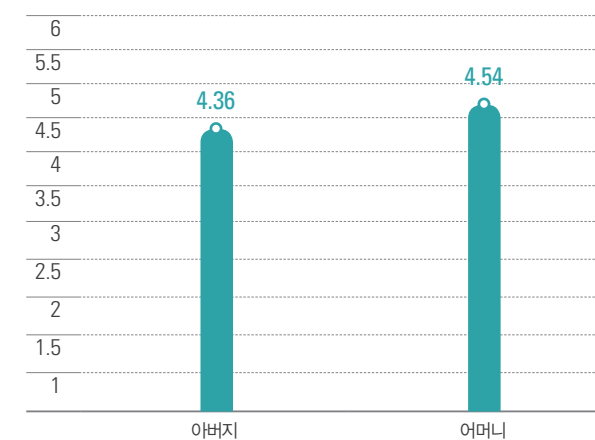
1) 자녀와의 관계

서울시민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만 6~24세 자녀와의 친밀감: 6점 만점에 평균 4.45점, 만 25세 이상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6점 만점에 평균 4.51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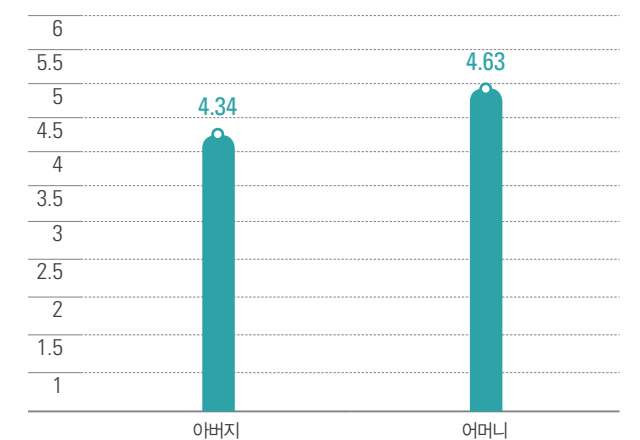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1,600명 중 만 6~24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 546명, 만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288명에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감, 상호이해 정도 등(4개 문항, 각 6점 만점)을 조사하였다. 만 6~24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아버지는 평균 4.36점, 어머니는 평균 4.54점이었고, 성인자녀의 아버지는 평균 4.34점, 성인자녀의 어머니는 평균 4.63점으로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6~24세 자녀와의 친밀감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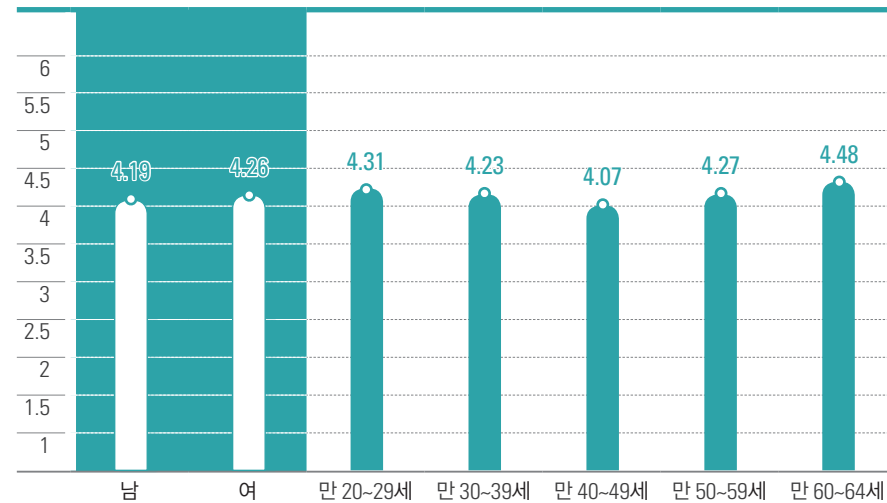
2)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있는 서울시민은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며(6점 만점에 평균 4.23점), 20대와 60대가 40대보다 부모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응답자 1,600명 중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1,419명에게 부모와의 관계(친밀감, 상호 이해 등 4개 문항, 각 6점)를 물어보았을 때, 평균 4.23점으로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평균 4.07점)보다 20대(평균 4.31점)와 60대(평균 4.48점)가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보고했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단위: 점



0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가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며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아동, 성인, 어르신, 남성,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가족의 새로운 요구를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일·생활 균형과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정책

경쟁사회가 되면서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일 중심, 성과 중심 문화가 만연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는 가족친화적 문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시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하는 데, 그리고 가족이 존중되는 가족친화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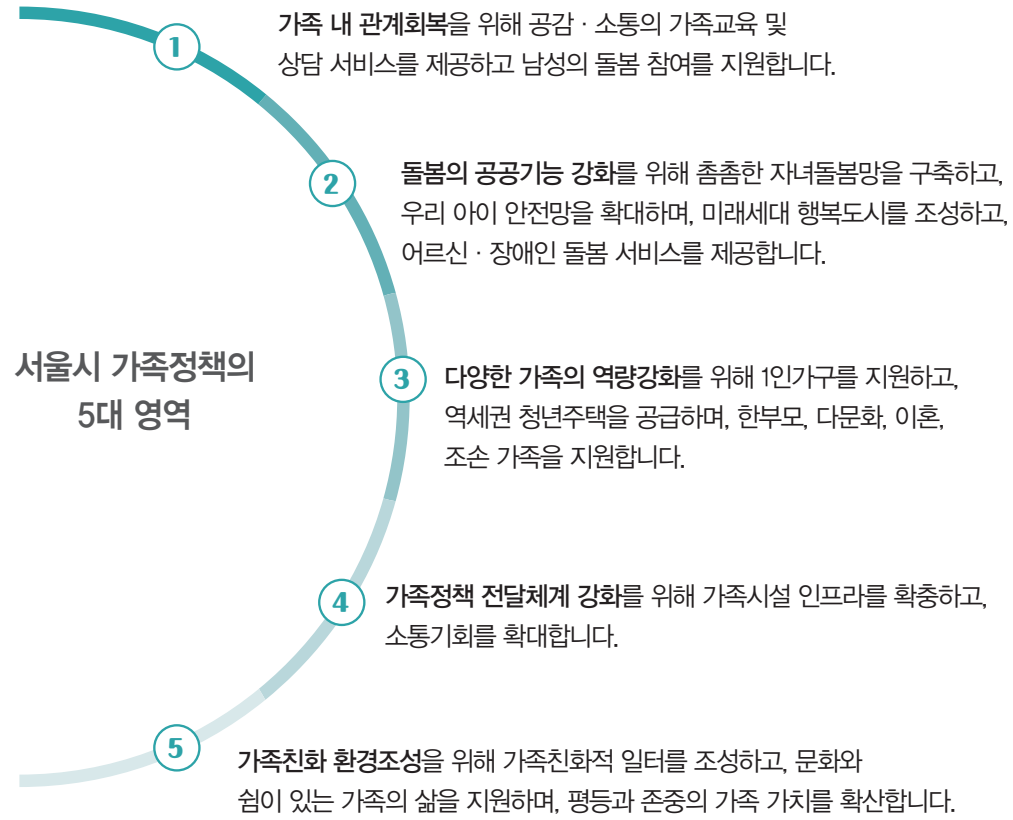
가족원의 권리와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한국가족에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규범이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탓에 세대 간, 젠더 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만혼, 비혼,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돌봄의 공백도 발생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세대와 젠더에 관계없이 가족원이 존중받고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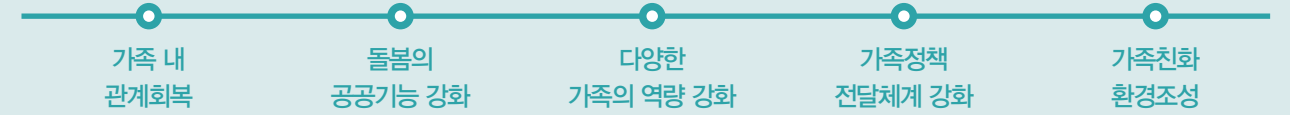
가족 주도,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정책

출산장려, 인구증가 등 국가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를 쌓고 어울려 살 기회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누리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2대 목표는 일·생활 균형과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의 5대 영역은 1. 가족 내 관계회복, 2.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을 통해 서울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가 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



02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 1 함께 여가와 성장을 누리는 가족
- 2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의 워라벨
- 3 즐겁게 일하는 엄마의 워라벨
- 4 가족친화적인 일터



02 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울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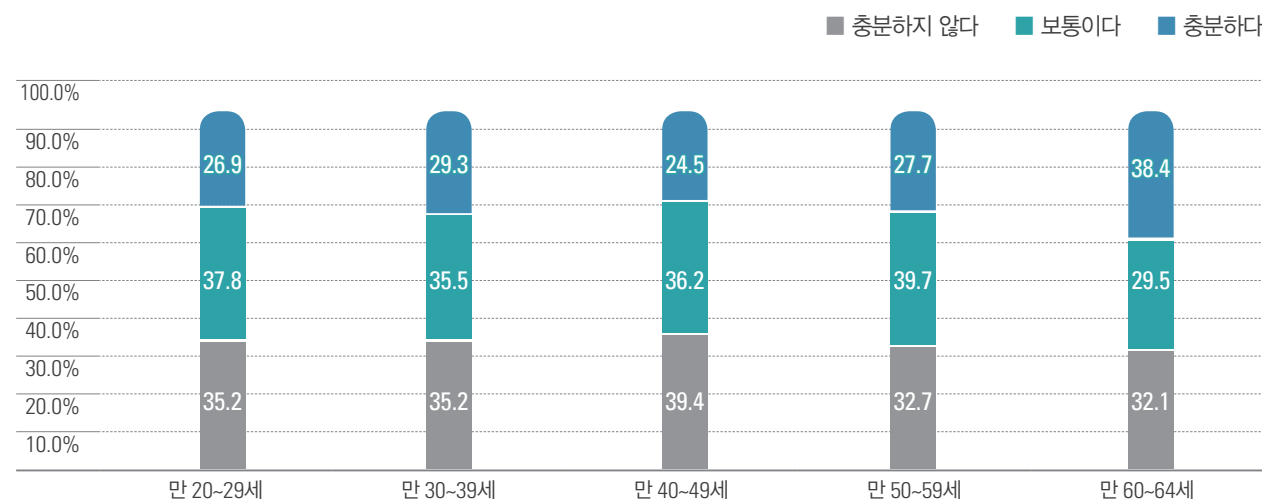
함께 여가와 성장을 누리는 가족

가족 여가시간이 불충분한 서울가족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 충분성이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49세까지의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34.0%), '일이 너무 바빠서'(20.1%), '경제적 부담 때문에'(15.9%) 등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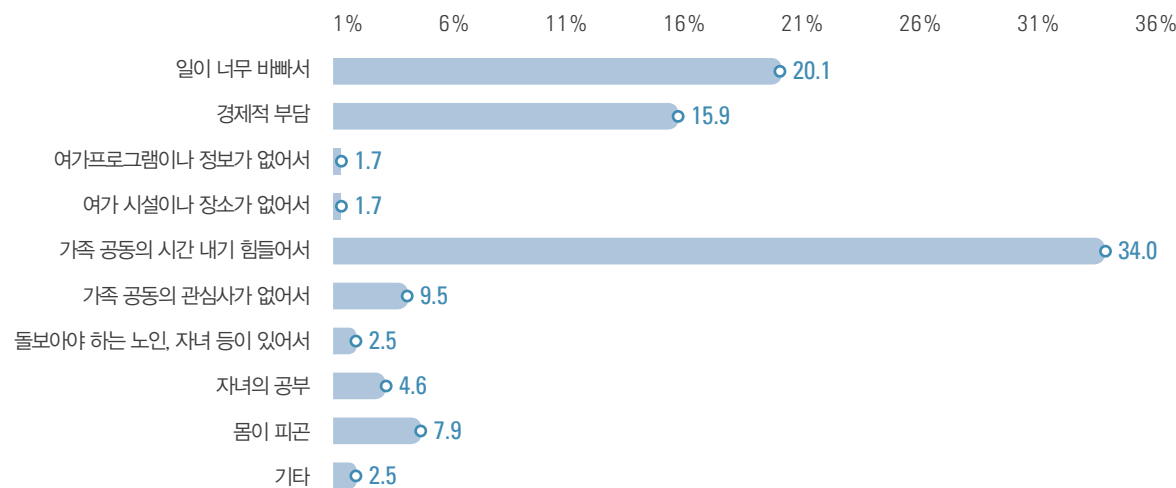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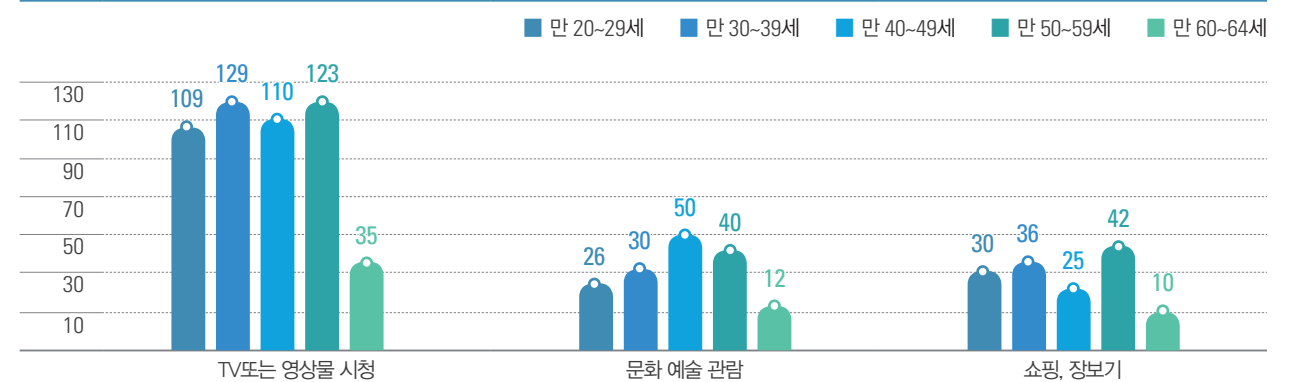
단위: %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으로 TV 또는 영상물 시청을 하며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람과 쇼핑·장보기로 나타나 적극적인 여가보다는 TV시청이나 쇼핑 등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여가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64세의 가족 여가활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1~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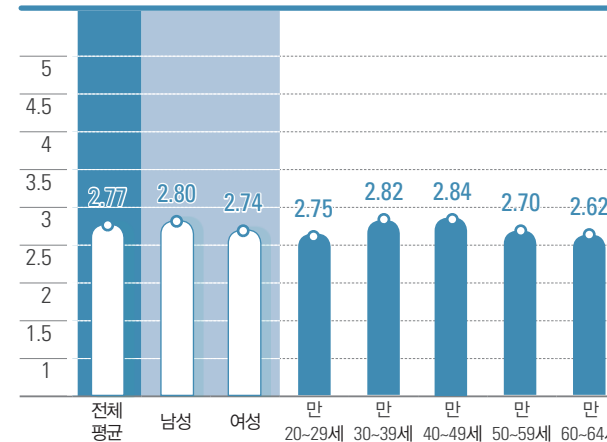


일·여가와 일·성장 균형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취업 중인 1,216명을 대상으로, 일·가족 균형, 일·여가 균형과 일·성장 균형 세 가지의 하위영역에 대해 각 5문항씩으로 측정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에서 일·여가 균형은 평균 2.7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평균 2.8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0~4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에서는 30~39세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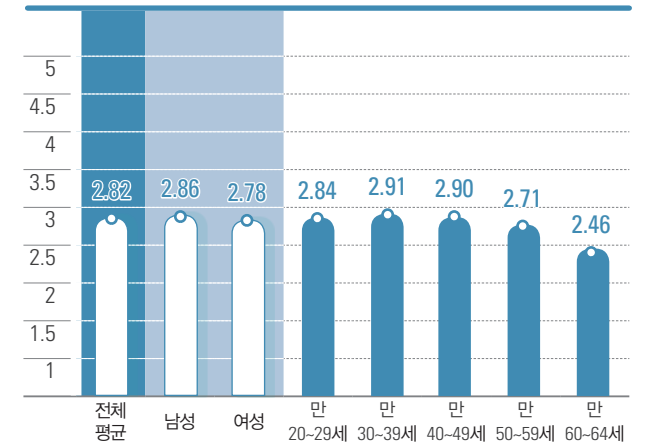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단위: 점





가족 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경영 기업들과 협력하여 정식퇴근을 권장하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특히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9월 가족사랑의날

가족 과일송편 만들기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가족당 1세트(12개 내외) 제공

☺ 아래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 일시 : 2019. 09. 18.(수) 19:00~21:00
- * 장소 : 참새방앗간 4층 조리실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12 D5필딩 4층/ 북성역 1번출구/ 주차불가)
- * 대상 : 성동구 거주 2인 이상 부모+자녀 10가족
- * 신청안내 : 온라인 접수(성동구건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1. 성동구 거주 우선접수
(최원정보와 거주하는 자치구가 다를 경우 연락바랍니다.)
 2. 조부모 및 다문화가족은 우선신청 가능
 3. 전일~당일 취소 시 추후 3회기 동안 참여 불가

※ 조리실이 협소하여 당일 실개 참여 가능한 인원만 신청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09.05.(목) ~ 09.10.(화)
- * 참여 확정 연락 : 09.11.(수)
- ※ 확정 연락을 받으신 가족만 참여 가능합니다.
- * 문의 : 가족사업지원팀 ☎ 070-7477-8503
- * 센터 사정에 의해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처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토요가족돌봄 및 모두가족봉사단

가족이 다 함께 놀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토요가족돌봄나눔, 모두가족봉사단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토요가족돌봄나눔은 매주 토요일마다 레크리에이션, 독서, 공예, 멘토링 등의 활동을 한다. 아버지-자녀 토요돌봄 프로그램에서는 놀이, 체조, 스포츠, 요리교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평소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두가족봉사단은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월 1~2회 진행되며 자원봉사 인증서도 발급된다.

모두가족봉사단 및 아버지-자녀 토요돌봄 프로그램



출처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서울시 문화·여가 관련 사이트

서울 곳곳의
문화·여가 정보를
한눈에

서울문화포털은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공간 안내, 우리문화 체험과 문화재 안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도 운영한다.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홈페이지는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나들이 장소, 행사 및 축제 정보를 제공하며 성별, 연령, 생애주기, 가족 유형, 지역구, 정보 유형에 따라 알맞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특강, 전시 해설 및 투어, 연극부터 진료서비스까지 공공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서울문화포털 및 서울시 문화본부

- 서울문화포털 | culture.seoul.go.kr
- 서울시 문화본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ulture.seoul.go.kr
- 서울시 문화본부 트위터 | @culturespace
- 패밀리서울 | familyseoul.or.kr > 패밀리존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yeyak.seoul.go.kr



서울문화포털



패밀리서울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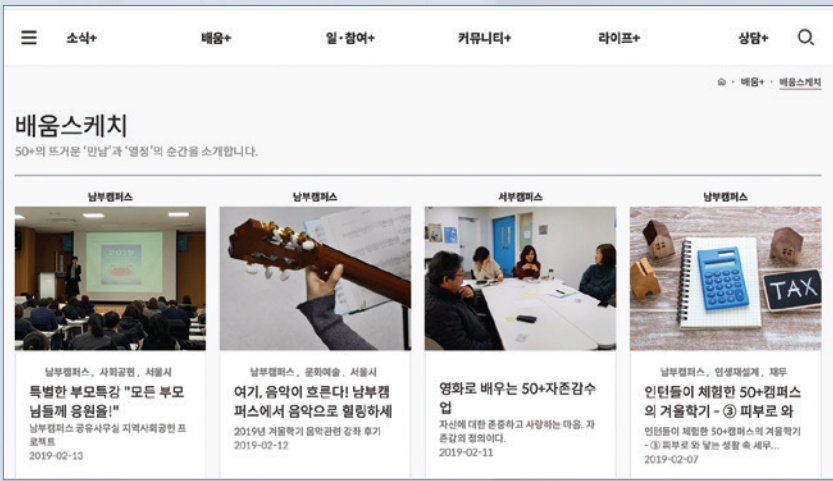


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배움+

50세 이상의
서울시민에게 교육,
교양 강의, 활동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 이상 세대의 인생설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센터다. 50플러스센터는 각종 교양 강의, 명사특강과 '인생학교' 프로그램, 음악·미술 강의 등 다양한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한다.

50플러스재단 배움스케치



출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여가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과 가족에게
여행 서비스 및
문화누리카드 제공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원예, 한국무용과 같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아동, 청소년 및 성인 발달장애인 모두에게 제공한다. 장애인 가족에게는 주말 가족 프로그램, 돌봄가족휴가제를 제공하며, 장애인 본인에게도 돌봄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부담 비율은 12~25% 정도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공연, 영화, 전시, 음반 및 도서 구입,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며, 1인당 8만 원이 지원된다.

이용방법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여가 지원 프로그램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 www.seoulrehab.or.kr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 발급 절차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자격 검증 및 정보 등록 ▶ 현장 수령
인터넷 : 홈페이지 방문 ▶ 자격 검증 및 본인 인증 ▶ 정보 등록 ▶ (2~3주 후) 우편 수령 혹은 농협 영업점 수령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누리카드



캐나다의 커뮤니티 센터



캐나다

커뮤니티/레크리에이션 센터 Community/Recreation Centre

캐나다에는 도시마다 Parks and Recreation 부서에서 관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

커뮤니티 센터(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종류별, 연령별로 운동, 미술/예술, 아이돌봄, 교육, 요리,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가(예: 아기와 함께하는 요가), 에어로빅(예: 시니어를 위한 아쿠아 에어로빅), 탁구, 농구, 수영, 발레 등 다양한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사기 예방 프로그램, 북클럽, 언어 수업 등 교육목적 프로그램도 있다.

67.5만 명이 거주하는 밴쿠버시에 27개, 293만 명이 거주하는 토론토시에 80개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서울시에도 구민체육센터(문화체육센터)가 있으나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적어 확대가 필요하다.

사진1 <https://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dunbar-community-centre.aspx>

사진2 <https://westvancouver.ca/parks-recreation/community-centres/aquatic-centre/facility>

출처 <https://vancouver.ca/parks-recreation-culture/community-and-cultural-centres.aspx>

정책 제안

육아나눔터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물리적 환경과 접근성 개선 필요



송파구 공동육아나눔터



출처 송파구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songpa?Redirect=Log&logNo=221345239181>

최근 미세먼지와 산성비, 추위, 더위를 피해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가족이 많아졌다. 그러나 키즈카페와 같은 사설 실내놀이터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열린육아방'은 어린 아동을 위한 실내놀이터이자 육아 품앗이 장소이다. 가족에게 인기가 높지만 시설 수가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한 편이다. 구비된 놀잇감도 사설 키즈카페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가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는 큰 규모로 나눔터를 운영하고, 작은 규모의 공간은 동네마다 설치하여 충분한 놀이 환경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노후한 공원이나 놀이터를 실내놀이터로 개조하는 것도 영유아 가족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의 서리풀 노리학교는 영유아 전용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놀이터이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 체육관에서부터 미술 체험존, 마트놀이, 미끄럼틀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육아서적도 마련되어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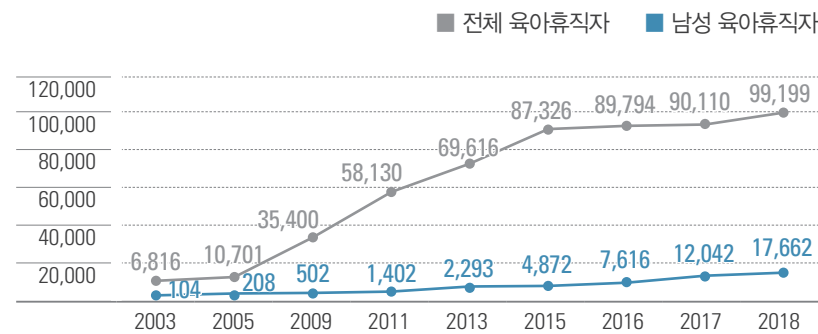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의 워라벨

1년 새 47% 증가한 아빠 육아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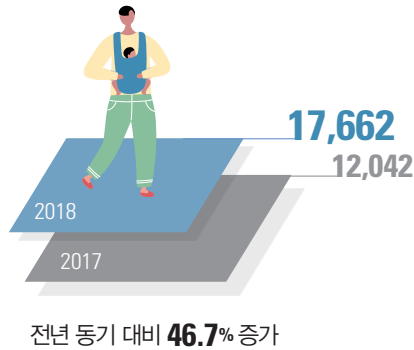
2018년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에 비해 46.7% 증가한 것으로, 특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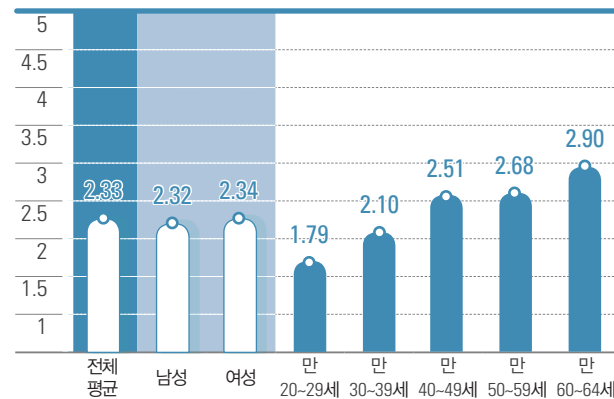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성역할태도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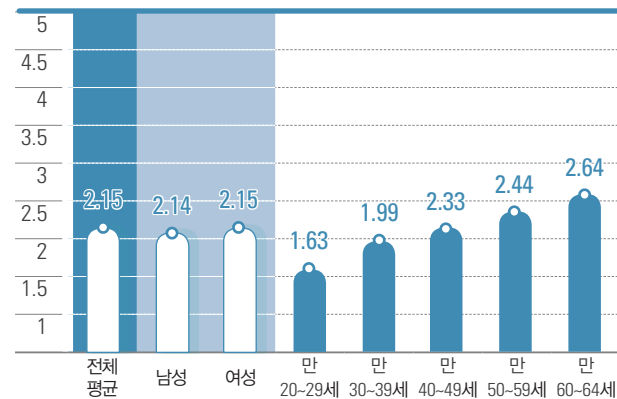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성역할태도 문항 중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 문항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와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는 두 문항(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이 2.2점대로 점수가 비슷하여 보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눈에 띄게 점수가 낮으며,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에 대한 동의수준



'맞벌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에 대한 동의수준

단위: 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제공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 월 250만 원)로 지급한다.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로 아버지가 두 번째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불린다. 이용자 수는 2016년 2,396명(여성 307명)에서 2018년 5,737명(여성 869명)으로 증가했다.

아빠육아지원 (아빠넷)

아빠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아빠넷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 육아 참여 · 직장 복귀 지원, 아빠 맞춤형 통합 정보, 아빠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www.papanet4you.kr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제공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주제는 △아빠의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 해소 방법 △코칭형 아버지 되기 △자녀와의 친밀감과 안정적 애착 관계 △효과적인 훈육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민주적 가족 만들기 등이다.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패밀리서울 홈페이지(www.family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부자유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 프로그램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자유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빠자녀 건축학교'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주말 여가시간에 아빠와 자녀가 건축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해 건축가 역할놀이, 신문지 공간 탄생, 아지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동네 체육왕 프로그램

“찬영아, 지우야! 준비됐지? 이번엔 아빠랑 등산&러닝 이대!”

2019 서울시 부자유친 프로젝트

우리동네 체육왕

프로그램 구성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버지 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진행합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하며 키와 자신감이 쑥쑥!**

더욱 친~한 아빠+자녀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참여대상

아빠와 초등학생 자녀 15가족 (8~10세)

신청기간

5월2일(목요일) 오전 10시 ~ 선착순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네이버 예약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시 전화 또는 방문접수 가능

1주차 아빠랑 러브액슈얼리 등산
6월 1일(토) 10:00~12:00
맑고 푸르르 관악산

2주차 아빠랑 심정박동 맞춰요 러닝
6월 8일(토) 10:00~12:00
즐거움이 흐르는 도림천

공동 안내사항

1. 프로그램 신청 후,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참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보험가입 예정으로, 이를 위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프로그램은 총 2회기로, 2회기 모두 참여가능 하신 분들께 우선순위가 제공 됩니다.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공동체파트 유지온(02-883-9390)

출처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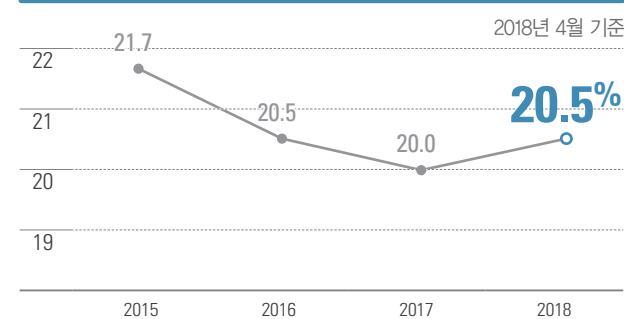
03

즐겁게 일하는 엄마의 워라밸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기 쉬운 엄마의 경력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그만둔 여성이다. 2018년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은 184만 명이 넘으며 이 중 30~40대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육아, 임신 및 출산 순으로 꼽혔다(통계청, 2018.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워라밸과 상충되는 직장 문화 및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기대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며, 다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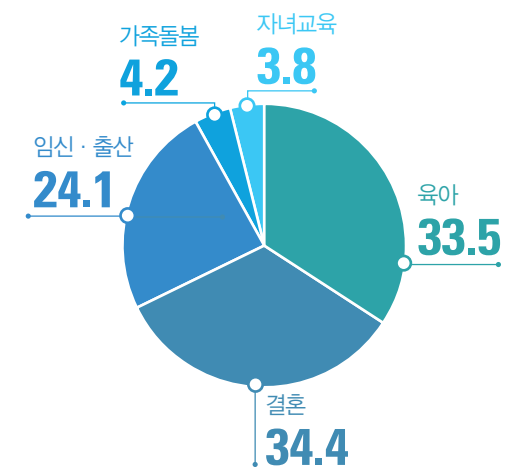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8.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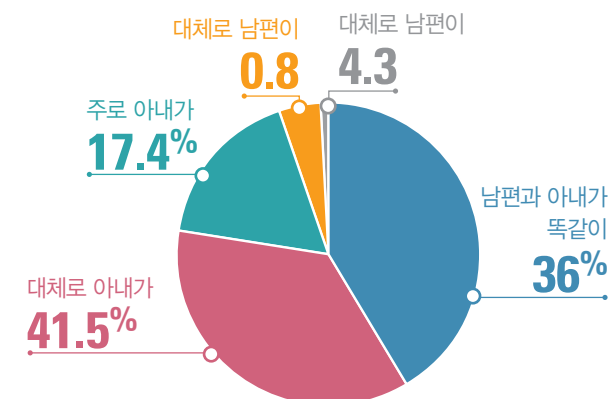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을 보면, 주로 또는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1.5%), 다음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36.0%) 나타났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는 경우에도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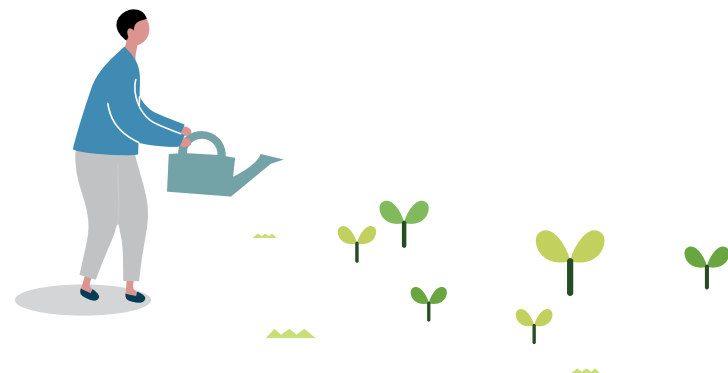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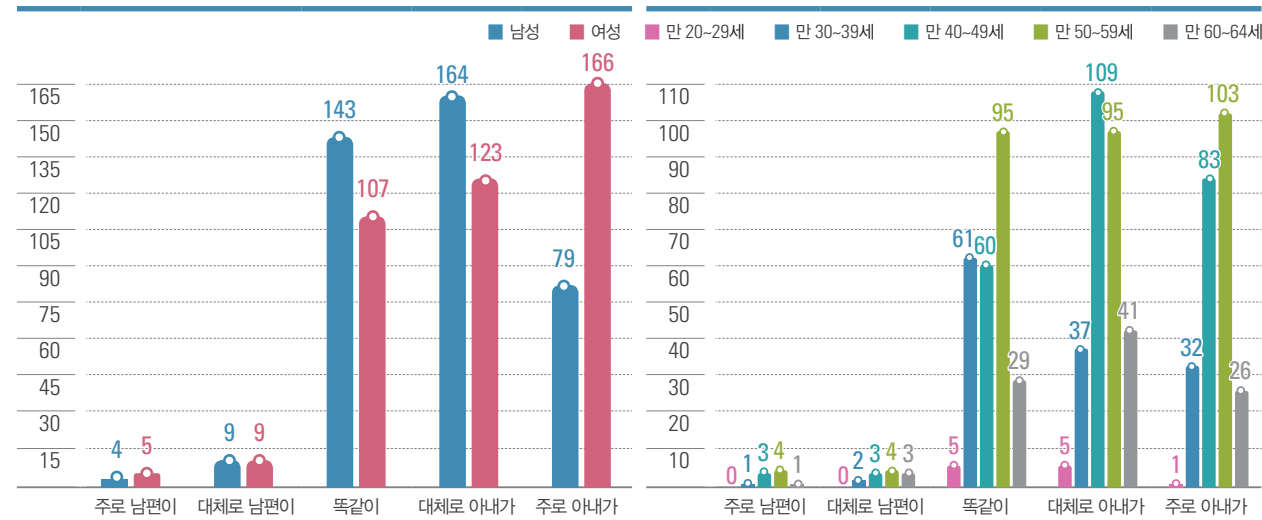
■ 주로 남편이 ■ 대체로 남편이 ■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 대체로 아내가 ■ 주로 아내가



가정 내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해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부터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까지 총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은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49세가 '대체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50~59세가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적이지 않은 성역할태도와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아내가 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성별 자녀 돌봄의 실제 부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의 고충 해결하고
노동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 센터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부모자조모임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 강화를 돕는다. 2019년 현재 동부권, 서북권,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노무상담을,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지역에 기반한 주민 밀착형 사업에 비중을 두어 운영한다.

직장맘지원센터 주요사업

직장맘 3고충 해소 종합지원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종합상담 원스톱 서비스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 콜서비스
직장맘 역량 강화 지원	- 직장부모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노동법상 모성보호제도 등 노동법률 교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지원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직장맘 토크'이라는 팟캐스트 운영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구직,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결혼과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엄마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연계,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 집단상담을 지원한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158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는 총 29개소의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용방법

새일여성인턴사업

- 참여대상 |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자격조회 후 조건 충족 시 인턴 연계)
- 인턴기간 | 3개월
- 근무조건 |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서울우먼업

교육과 취업 자료 제공하는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통합 사이트

서울우먼업(Seoul Woman Up)은 서울시의 24개 여성인력개발 기관을 통칭하는 브랜드이자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www.seoulwomanup.or.kr)의 이름이다. 서울시여성 능력개발원, 서울시여성발전센터, 서울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각종 국비 및 시비 지원 프로그램,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대체 인력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을 운영 및 제공한다.



해외 사례

독일과 스웨덴의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제

독일

부모수당, 부모수당 플러스

독일의 부모수당은 직접 육아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주 30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하는 부모를 위한 수당제도로, 출산 후 대체로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에 도입된 부모수당 플러스는 부모수당의 월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더 긴 기간 동안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 부모수당이 지급되는 12~14개월 이후에 부모수당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 보너스' 정책에 따라,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시간제로 일할 경우, 추가로 4개월간 부모수당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

부모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에서는, 결혼한 부부 또는 동거커플이 출산이나 입양을 할 경우,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최대 480일 중 300일은 부부가 합의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은 각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다.

독일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616_92529.pdf 2017년 보험연구원 자료

스웨덴 2017 근로시간 유연화 해외사례연구 최종본-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04

가족친화적인 일터

장시간 근로와 가족친화성 없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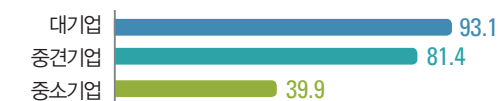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8년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높다(Hours Worked, OECD).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처우는 2000년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까지 33개국 중 32~33위 수준이다(Women in Work Index, PwC).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근로자들이 가족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을 의미한다.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의 시행률이 절반에 못 미친다.

회사 규모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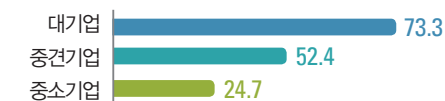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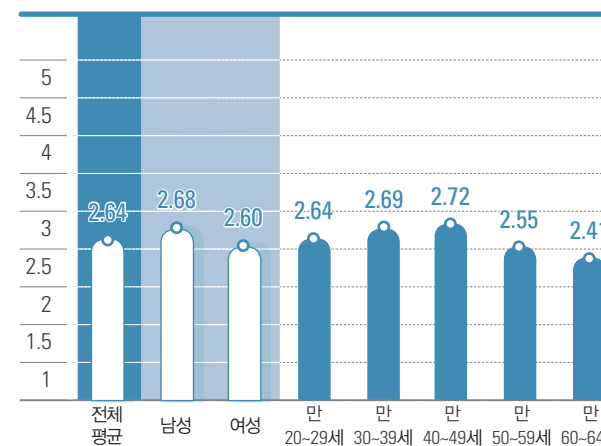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2017.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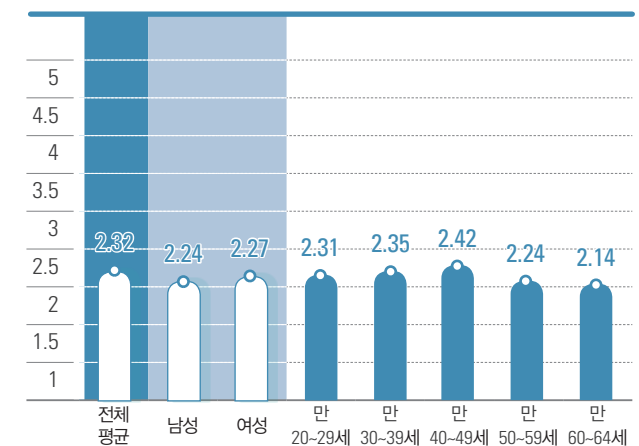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는 취업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1) 일·가족 균형, (2) 일·여가 균형, (3) 일·성장 균형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일·생활 균형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뜻한다. 세 가지 영역을 합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평균 점수는 2.6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평균 2.72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영역 중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점수는 평균 2.32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에서 평균 2.4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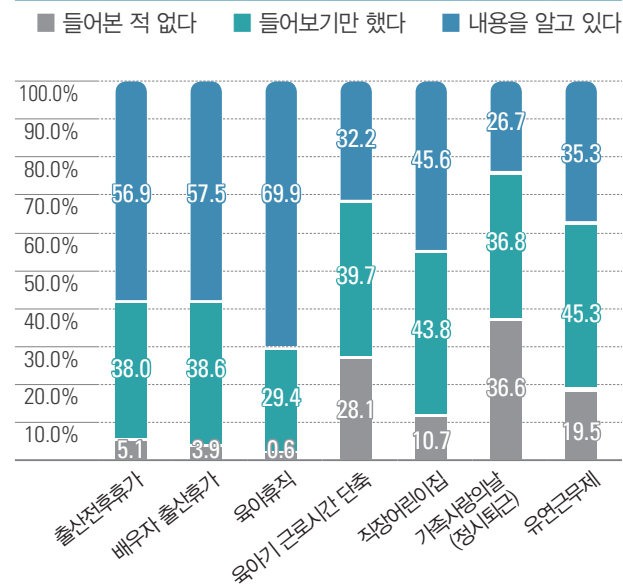
단위: 점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인지도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는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정책 인지도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사랑의 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정책 이용 여부와 만족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해본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해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정책 사용 만족도(5점 만점)는 유연근무제가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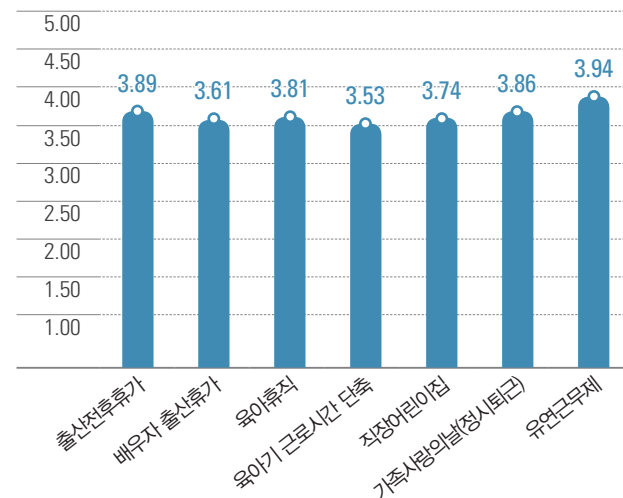
정책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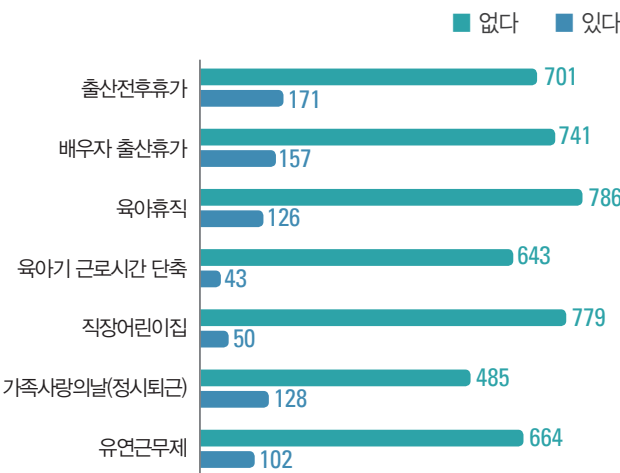
정책 만족도

단위: 점



정책 이용경험

단위: 명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휴가·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에
여성 근로자에게
90일간 유급휴가 제공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일 경우 60일)이어야 한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유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가 제한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의 경우와 비슷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난임치료휴가가 도입되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최초 1일은 유급)를 1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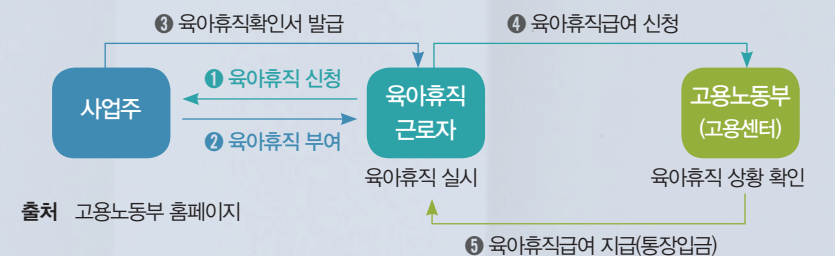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3~5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기존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1년간의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50~80% 지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한다. 또한,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기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최대 2년)이 보장된다. 또한 기존에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일 2~5시간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용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1일 1~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장근무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이 10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되며,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종료 후에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친화 직장환경

서울

서울시의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 부여

서울시는 2009년부터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자격 제공,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부여, 서울시 표창, 홍보 콘텐츠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

가족친화 우수기업 로고



출처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출퇴근과 등하원
시간 걱정 덜고,
신뢰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사업과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월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대기업 364개, 중소기업 2,028개, 공공기관 936개로 총 3,328개사가 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직장어린이집은 총 226개로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약 23%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전국 직장어린이집 현황정보, 근로복지공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일·생활균형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2018년까지 일·가족양립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 2019년에 이름을 변경하였다.

유럽의 근로시간 단축

네덜란드

근로시간 조정법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게 제도이다. 출퇴근시간 유연화 제도는 근로자 자녀의 아동보육시설 이용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압축근무제는 1일8시간 이상 근무 대신, 주당 5일 미만 출근하고, 근로자의 통근시간을 근로시간의 일부로 계산한다.

독일

가족 근로시간 모델

2017년 독일에서는 특정 기간 근로시간을 25~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가 가능한 시기에 다시 전일제로 늘릴 수 있는 가족 근로시간 모델이 시작되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도입되었다.

영국

유연근로 청구권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영국에서 2002년 도입된 유연근로 청구권은 자녀와 노부모를 돌보고자 하는 여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2010년부터 남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 공유, 재택근무, 단축근무, 압축근무, 자율출퇴근, 연간집중근무, 별도 근무, 단계 은퇴 선택, 학기 근무, 원거리 근무, 안식년과 책임완수 등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유연근로를 도입한 영국의 금융 기업 Barclays에서는, 워킹맘과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의 일자리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 Working here
We're building tomorrow's bank together
Here at Barclays, a key part of our evolution is our commitment to creating a diverse and inclusive workplace, where everyone's value is recognised and every employee has the same opportunities to fulfil their career potential. This includes making sure we cater for anyone who benefits from a more flexible work-life balance.

네덜란드 출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선도국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책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독일 출처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616_92529.pdf 2017년 보험연구원 자료
영국 출처 2017 근로시간 유연화 해외사례연구 최종본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사진 <https://jobs.barclays.co.uk/working-here/dynamic-working/>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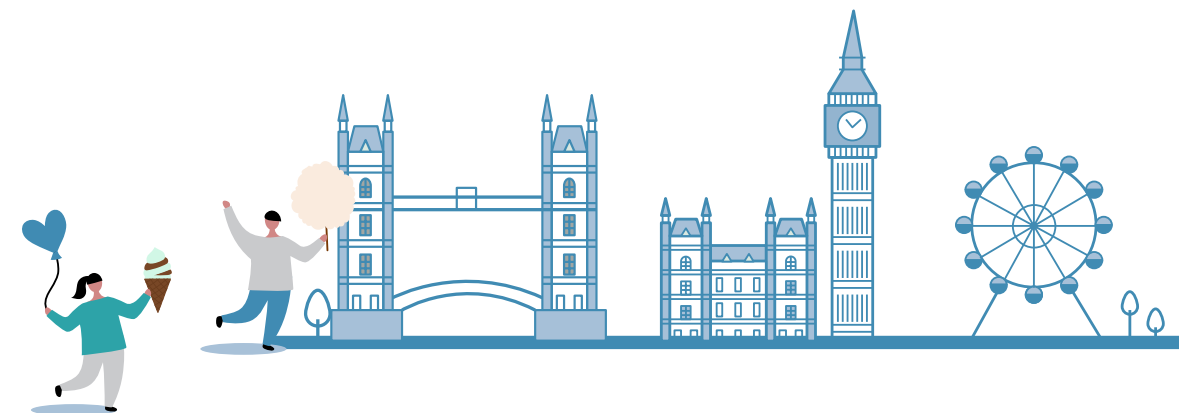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는 휴가제도 필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행사, 교육,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것은 학부모로서의 권리이자 책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자녀돌봄휴가'가 시행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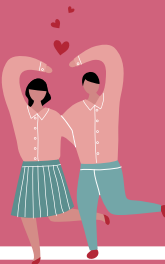
민간 부문에서도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가 2011년부터 논의되어왔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하였다. 학부모의 교육참여는 가정과 학교의 소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필수적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휴가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2016), 학부모 학교참여휴(공)가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방안 연구.



03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 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 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 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03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0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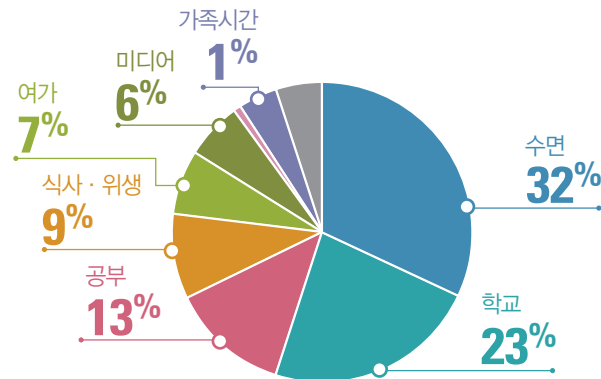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하루일과 중 가족과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은 13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9 아동행복생활지수)

2017년 초·중·고등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에 부모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가족과 활동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3분에 불과했다. 이는 학교생활에 보내는 시간 평균 331분, 공부에 보내는 시간 평균 190분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평일 하루 시간구성

단위: %

■ 수면 ■ 학교 ■ 공부 ■ 식사·위생 ■ 여가 ■ 미디어 ■ 이동 ■ 가족시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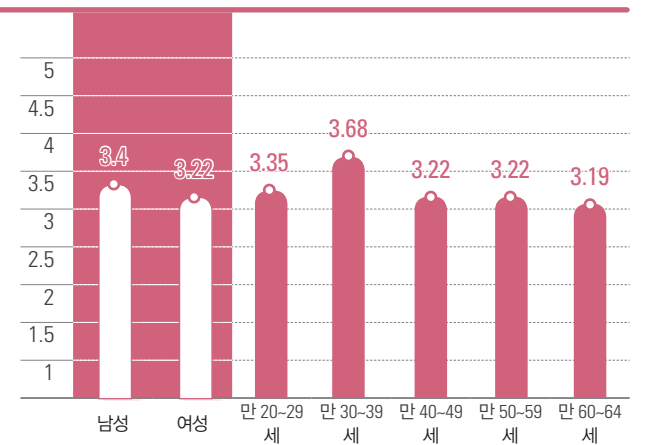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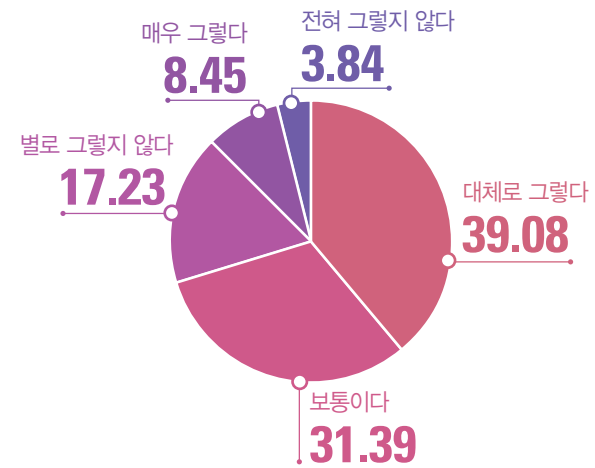
출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9. 아동행복생활지수

배우자와 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21.1%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5점 만점)의 평균은 3.3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대체로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21.1%였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평균 3.40점, 여자는 평균 3.22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는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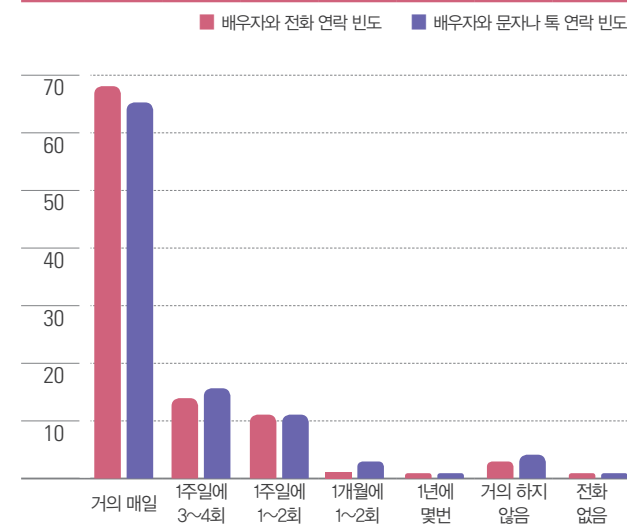


다양한 매체로 소통하는 서울가족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배우자와 전화로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묻는 질문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7.2%였다. 문자나 톡으로 배우자와 연락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도 63.9%가 '거의 매일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첫째 자녀(만 6세 이상)와 전화로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39.5%가 '거의 매일 연락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문자나 톡으로 거의 매일 첫째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도 38.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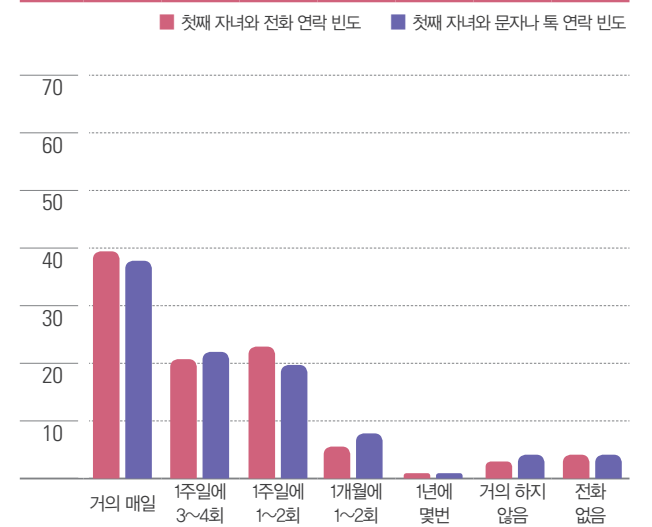
배우자와 연락 빈도

단위: %



첫째 자녀와 연락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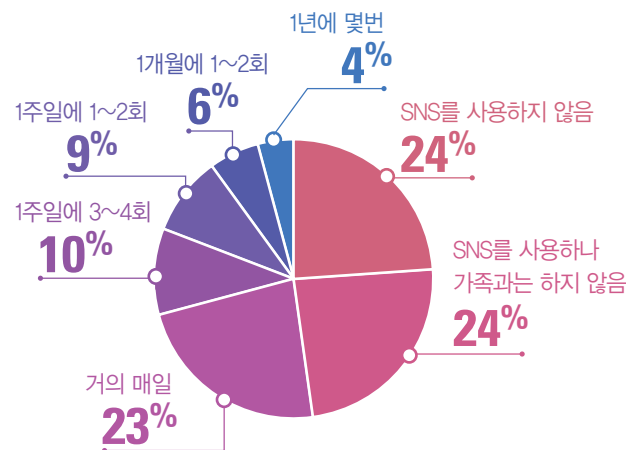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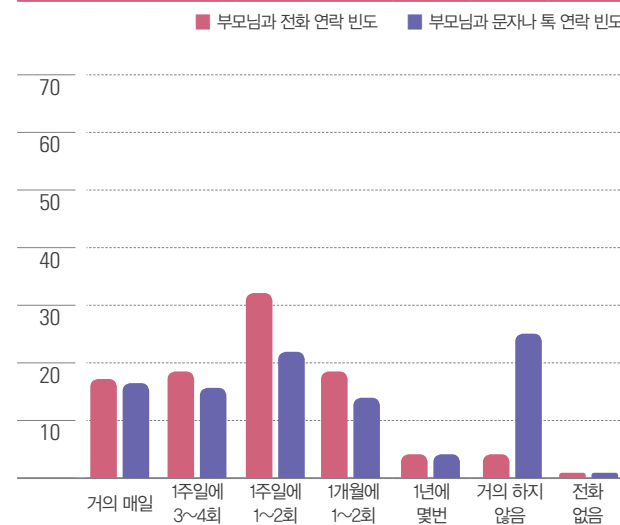


본인의 부모님과 전화로 연락하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1주일에 1~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부모님과 문자나 톡으로 연락하는 빈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다.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족과는 하지 않는 응답자가 47.9%이기는 했으나, 응답자 중 23.1%는 거의 매일 SNS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연락 빈도

단위: %

가족과의 SNS 소통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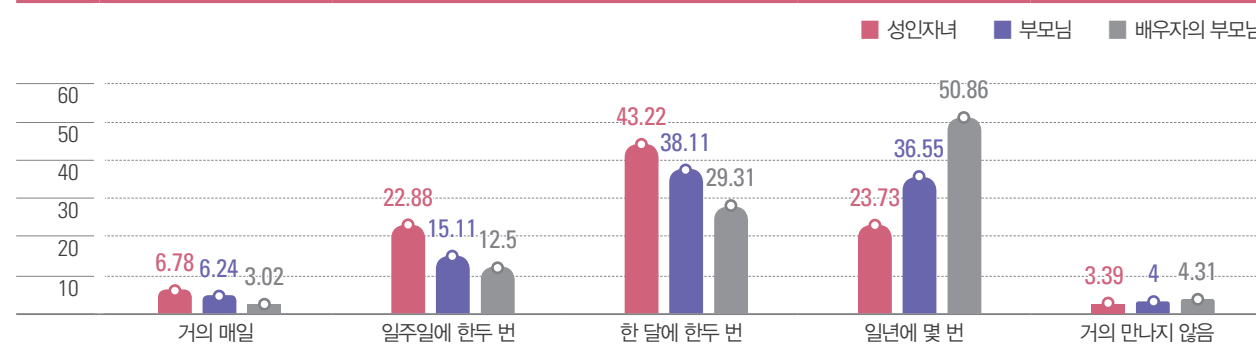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서울가족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함께 살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118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는지 를 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본인의 부모님이 계신 1,026명에게 부모님과 만남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이 38.1%, 일 년에 몇 번이 36.6%로 비슷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696명이 응답하였고, 일 년에 몇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0.9%를 차지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과의 만남 빈도

단위: %



서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제 예방 및 가정건강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부록 참고). 또한, 서울시 광역센터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패밀리 허브'로서 서울시민의 가족문제 예방 및 가정건강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가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패밀리서울 홈페이지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서울가족학교는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가족생활에 관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패밀리셰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서울가족학교

서울가족학교는 가족 간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실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신혼부부교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시작
의사소통 OK, 다들 결혼 언제
신혼부부들의 고민 해결 위해!
예비 신혼부부교실로 행복한 결혼을 준비,
시작하세요!

신랑대상

커플 또는 부모로만 신청 가능.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생활영역권
(인천, 화교, 가우시 등)인 자.

아동기 부모교실

"도대체 좋은 양친, 아빠는 어떻게 되는걸까?"
"아이와의 관계가 행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

청소년기 부모교실

"자녀를 돌봐 아이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
나, 잃어가고 있는 걸까?"
자녀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대화를 매료함으로써, 자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

신랑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14~19세)
자녀를 둔 부모

패밀리셰프

맛있는 요리 가득한 가족들과의 식사시간,
음식가로서의 바른 인생을 향유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패밀리 셰프에 참여하세요!

신랑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좋은 아빠 되기" 어렵지 않아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아버지 교육!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직장으로 찾아가 기관의 구인원 특성과
인원 수에 따라 맞춤형 아버지교육을 실시합니다.

신랑대상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문의처: 신랑Familyhouse.or.kr 또는
신청전화(02)577-9339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예비·신혼부부교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행복한 커플 대화법,
재무관리 교육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 중인 커플, 신혼부부를 위해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신혼부부교실은 자신과 상대방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법이나 재무설계 등 건강한 결혼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배워 건강한 결혼생활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2019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연간 일정

2019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연간 일정

2월	서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3월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4월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신혼), 노원구, 송파구, 종로구
5월	강북구, 성동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6월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
7월	강서구, 도봉구, 동작구, 은평구(신혼), 중구
8월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구로구
9월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양천구, 서초구(신혼), 종로구
10월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11월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 상세 일정은 추후 패밀리서울 홈페이지 및 자치구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작은결혼정보센터

www.smallwedding.or.kr

작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위한 정보 제공

서울시는 '행복한 결혼식' 캠페인을 통해 작은 결혼식을 응원한다. 작은 결혼식이란 화려하고 소비적인 예식 대신 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예식, 스스로 준비하여 치르는 예식을 의미한다. 작은결혼정보센터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신부에게 예식장, 사진 촬영, 신혼여행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녀 연령 맞춤 부모교육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예비부모교육,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홈페이지(www.mogef.go.kr/kps/main.do)에서 자녀의 성장주기별 육아정보와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학부모On누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출처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학부모On누리: 온라인 부모교육



출처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출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가족 내 갈등과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대 1로 진행되는 개별 면접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성장하고 통하는 우리 부부 성장통(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 위기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이혼준비학교(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집단상담 프로그램인 ‘미술로 풀어 나가는 내면 이야기(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구별 집단상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용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 familyseoul.or.kr/consultation-guide
- 면접 상담(지역별) |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전화 상담 | 대표번호 1577-9337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지역센터로 연결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지원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혼 관련 의사결정, 이혼 후 협력적인 자녀양육, 부부 의사소통 개선, 이혼 후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제안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현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가족학교와 같은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인건리에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의하면 서울시민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면대면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ICT 기반의 가족소통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를 통해 근거기반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을 확대해나가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함께 필요하다. 현재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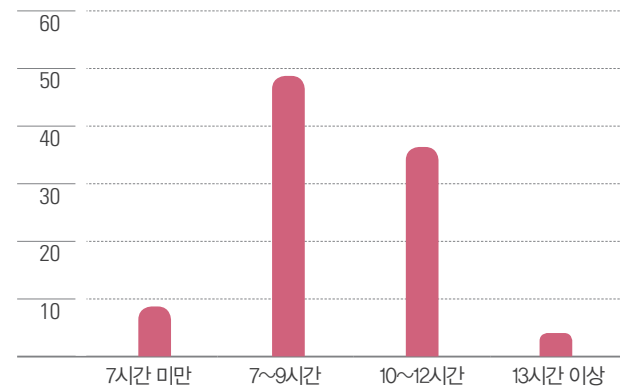
0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서울시에는 309,868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살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8,532가구로 전체 한부모가족 중 22.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인구총조사).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의 84.2%는 일하지만 소득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근로빈곤층에 해당한다. 또한, 한부모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으며,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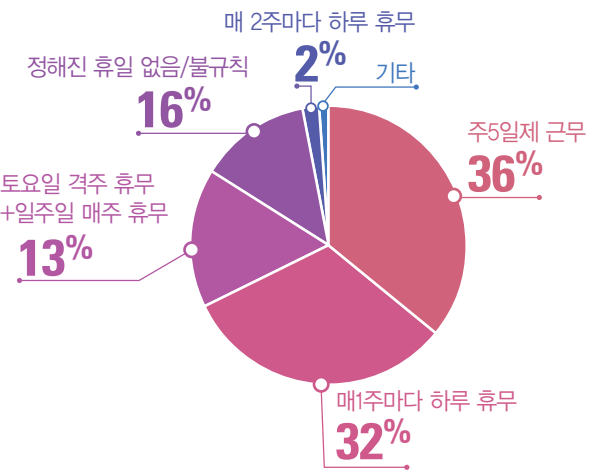
한부모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처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 일주일 중 휴무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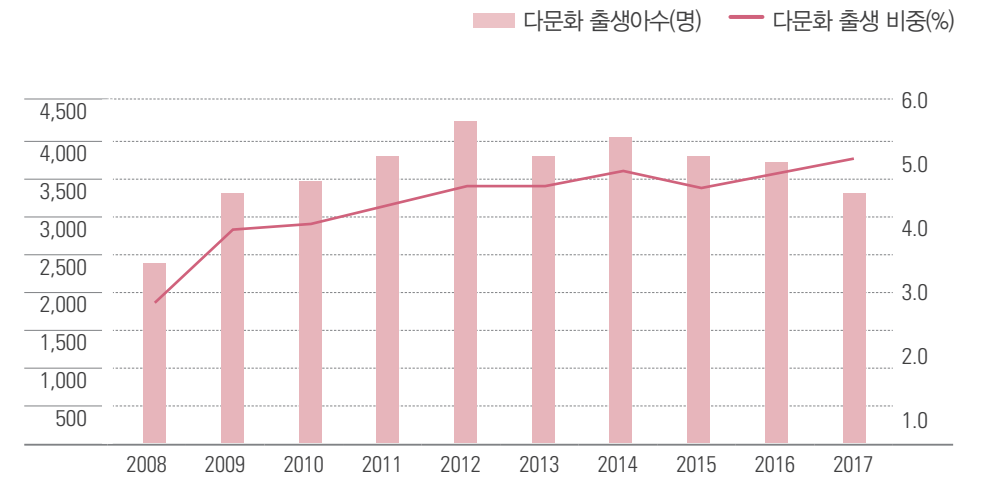
단위: %



증가하는 다문화가구 출생아 비율

자녀의 국적과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가족(부모 중 한 명만 외국국적)이나 외국인가족(부모 두 명 모두 외국 국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의 출생아 수는 2012년에 22,9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은 18,440명으로 총 출생아 중 5.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서울에서 출생한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는 3,288명이었(통계청, 2017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는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문화가구 출생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 전체 출생 중 다문화가구 출생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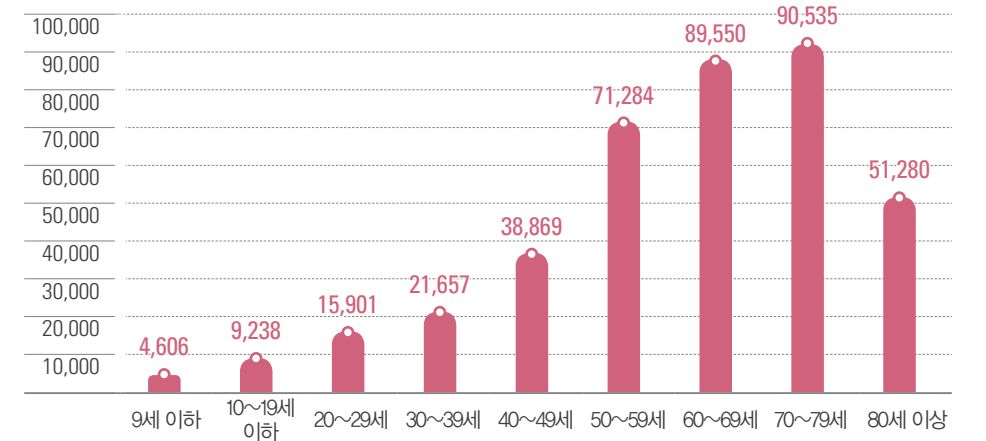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각 년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가족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수는 392,920명이고,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장애인이 13,844명으로 3.5%를 차지한다(서울시, 2018 서울시 장애인 현황 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4.0%이며,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원인 경우가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만 원으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362만 원에 비해 낮다. 또한, 가구 평균 월 17만 원 가량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연령분포



출처
서울시, 2018.
서울시 장애인 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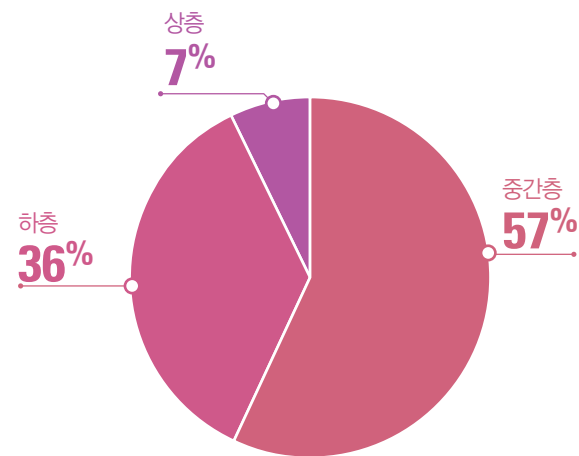


성공적인 남한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가족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까지 총 32,476명이 입국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의 201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23.9%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0%이었고, '하층'이라고 한 경우도 45.9%에 달했다.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이며, 그다음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 등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서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시설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의 일시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자립생활지원도 한다.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지자체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은 없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출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일 지원

new!

서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돌보미 선생님이 시설에
찾아가는 기관파견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받기 힘든 양육비,
신청 한 번으로 해결

가사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451만 2,000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 1회(회당 4시간) 청소·세탁·설거지를 대신 해주며, 본인 부담금은 회당 5,000원이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 선생님이 시설에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퇴소 후 1년 이내의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입주자이다.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이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한 번 신청하는 것만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new!

서울

서울시 한부모·비혼모 가정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꿈틀박스 지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양육용품 지원

서울시는 한부모 및 비혼모 가정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꿈틀박스를 지원한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게 24만 원 상당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꿈틀박스'는 유모차, 젖병, 아기띠, 배냇저고리, 분유 1단계, 수면조끼 등으로 구성된 출산양육용품이다. 엄마와 아기 모두 성장하는 꿈을 키워가는 틀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출산 6개월 이내 가정에 지원한다. 꿈틀박스는 서울시가 모든 출생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생축하용품 사업과는 별개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꿈틀박스 신청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를 위한 무료
숙식 제공, 분만 의료
혜택,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이 있다. 기본생활지원형은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분만 의료 혜택이 있고, 최장 1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동생활지원형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다.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향후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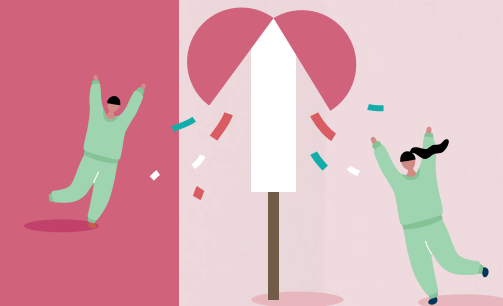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상담, 사회적
응교육, 취업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생활을 위한 방문교육을 제공하며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교육, 가족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인 다누리(www.liveinkorea.kr)는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서울

서울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다문화가족 소통기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한울타리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외국인지원기관 한국어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행정정보, 생활정보, 취업 정보 등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울타리



출처 한울타리 홈페이지

서울

다문화가족 · 외국인 자녀 학습 지원

다문화 및 외국인
자녀에게 1대 1
방문학습 제공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12세 다문화가족 · 외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전문 선생님이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한글 · 국어 · 사회 · 수학 등 기초학습 과목 중 하나를 1:1로 가르치는 방문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가정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또한, 중도입국자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출처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홈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 · 창업 중점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거주 밀집지역인 서남권 내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 · 창업 중점기관'으로 선정하고 종합지원창구를 신설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 · 창업 중점기관은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취 ·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부터 직업상담,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담해서 지원한다. 취 · 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1:1 개별 상담 및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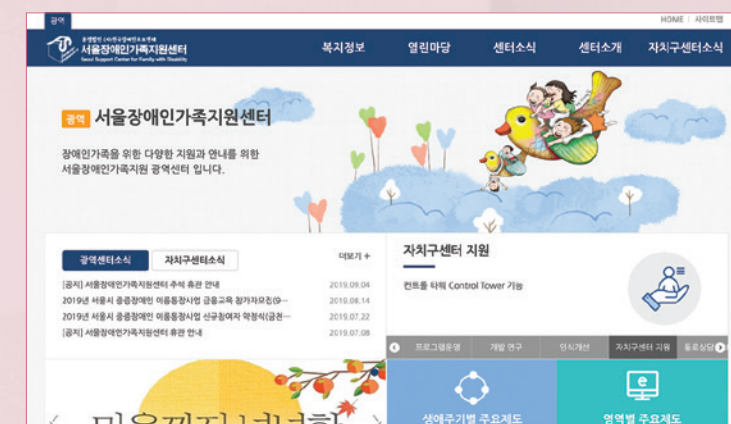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공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식 개선, 자치구 센터 지원, 동료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에 광역센터 1개소와 11개소의 자치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출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룸통장' 지원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통장

서울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증장애인은 이룸통장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이룸통장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준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장애인복지관 51개소와 재가복지봉사센터 1개소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역에 거점복지관을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자치구와 그 자치구 내의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업체 개발,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취업자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가족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통일부는 2009년부터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3개의 하나센터를 지정해 4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취업, 상담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23개, 서울에 4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해외 사례

미국 미네소타 주 이혼 부모교육



Parents Forever 이혼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

미국에서 이혼하려는 부모는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중 미네소타 주에서는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개발한 'Parents Forever'라는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다. 미네소타 주 대법원에서 승인한 프로그램으로,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나 자신 돌보기, 자녀 돌보기, 성공적인 공동양육(co-parenting)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혼과정에서 가족이 겪게 될 변화를 설명하고, 자녀 및 부모의 복지를 위한 공동양육에 대하여 알아보며, 부모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https://extension.umn.edu/courses-and-events/parents-forever-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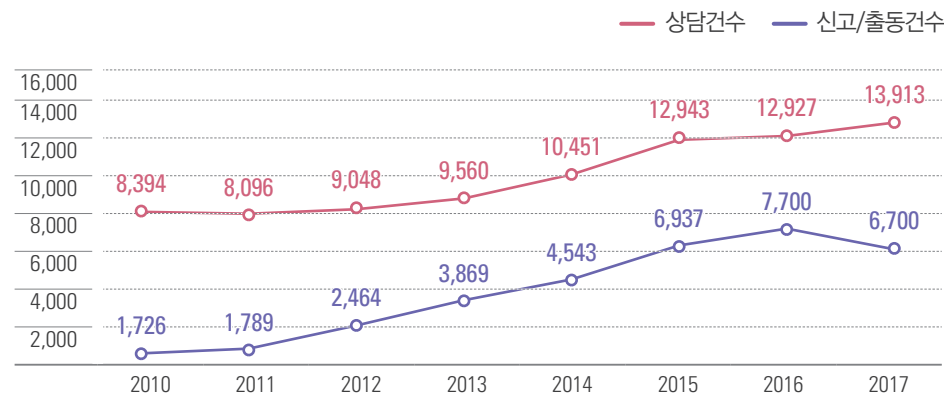
0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정폭력 상담건수 증가

가정폭력이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한다. 서울시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상담 대비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절반 정도에 이른다. 가정폭력 경찰 신고/출동 건수는 2016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및 신고/출동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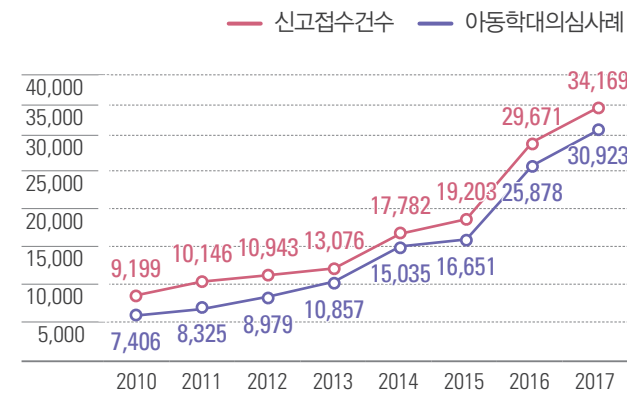
출처
1366 여성긴급전화, 각 년도.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각 년도.
서울시 가정폭력 발생현황

아동 및 노인 학대 증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 가 34,169건을 기록했다(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유형별로는 중 복학대가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21.1%), 신체학대(14.7%), 방임(12.5%)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3,84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아동학대 의 심사례는 88.3%인 3,396건이었다.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은 서울의 경우 1.66‰로, 전국 평균인 2.6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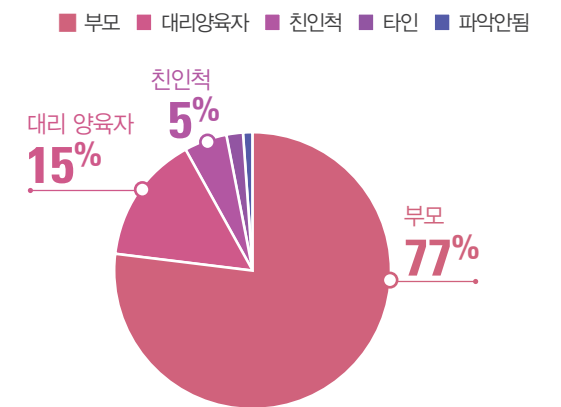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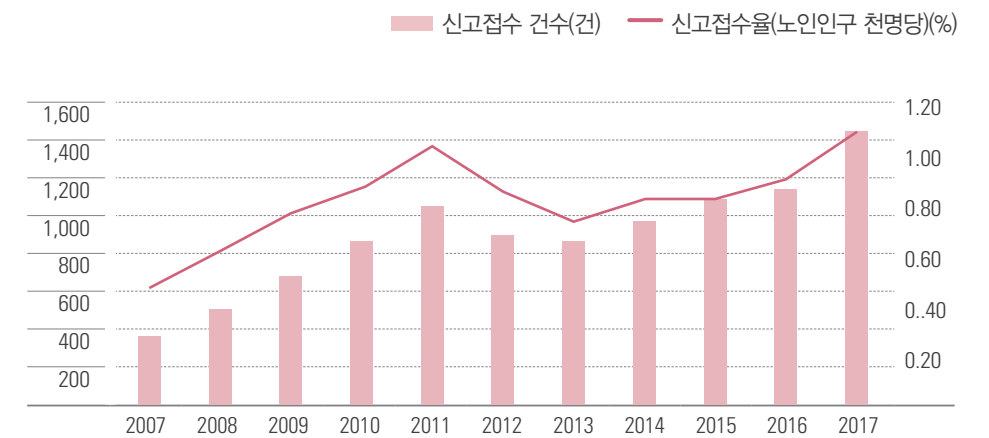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현황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6.4%), 방임(8.9%), 경제적 학대(5.6%) 순으로 발생했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들에 의한 학대가 37.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24.8%, 기관이 13.8%, 딸이 8.3%로 많았다. 서울시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연도별 노인학대현황). 서울시를 기준으로 2017년 신고접수 건수는 1,470건이었다.

서울시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접수



출처
보건복지부, 각 년도, 노인학대 현황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을 위한 긴급 심리·
정서 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 등의 충격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여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긴급 심리·정서 지원(지지 리더 파견),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가족역량증진 지원(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유크amp, 자조모임, 법률, 의료, 복지서비스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는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욕구와 특성에 맞는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 학습·정서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한 생활도움 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한다. 서비스 참여대상은 한부모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손)자녀를 둔 가족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전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이다.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홈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특별 보호를 제공하며,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장기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한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 복지센터 전담공무원이 직접 고위험가정을 방문 조사·상담하여 실제 위기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
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중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항목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이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서울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
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한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
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
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그룹홈 운영지원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
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출처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홈페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보호사업을
제공하는 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개
발하고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노인보호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서울북부, 서울남부, 서울서
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서울에 있다.



04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 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 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 3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04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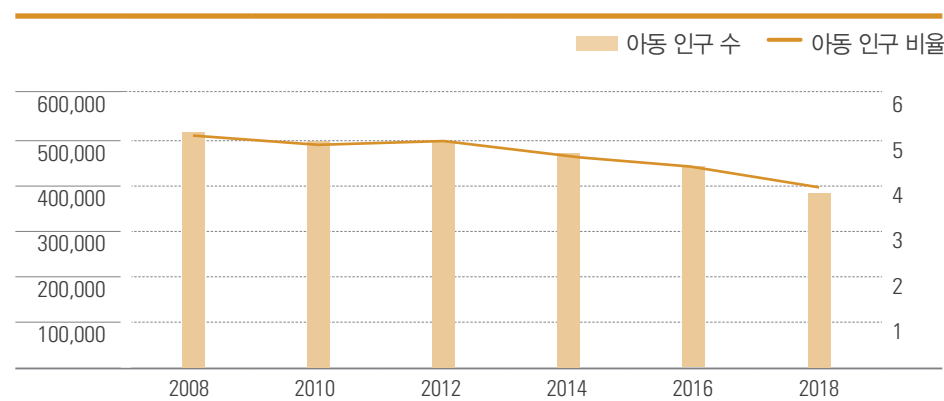
0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서울 인구의 4%를 차지하는 영유아

2018년 서울시의 만 0~5세 영유아 인구는 394,198명(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 통계)이며 아동 인구가 서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가량으로 10년 전에 비해 인구수로는 100,000명 이상, 비율로는 1% 이상 감소했다.

2018 서울시 영유아 아동 인구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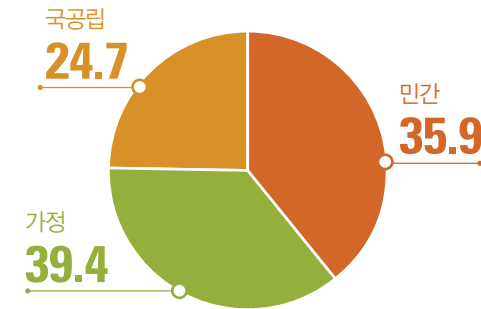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시 영유아 열 명 중 여덟 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26,959명(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으로 전체 영유아의 57.6%, 유치원 이용 아동은 85,213명(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교육통계)으로 전체 영유아의 21.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수의 24.7%, 재원 아동은 전체의 34%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 서울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율은 전국보다 높으며 지난해보다 증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에 207개소를 확충하였다. 서울시 공립유치원의 수는 226개로 전체 유치원 수의 25.8%로 지난해보다 2% 증가했다. 학급 수는 전체 학급 수의 19.3%, 재원 아동은 전체의 18%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교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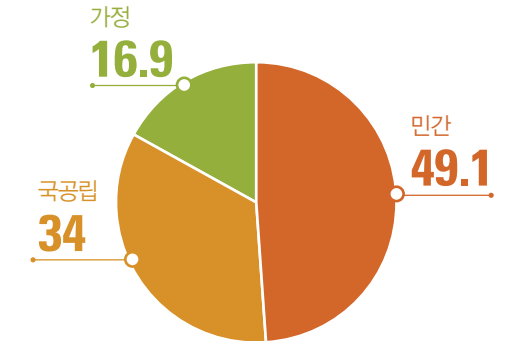
서울시의 어린이집 형태별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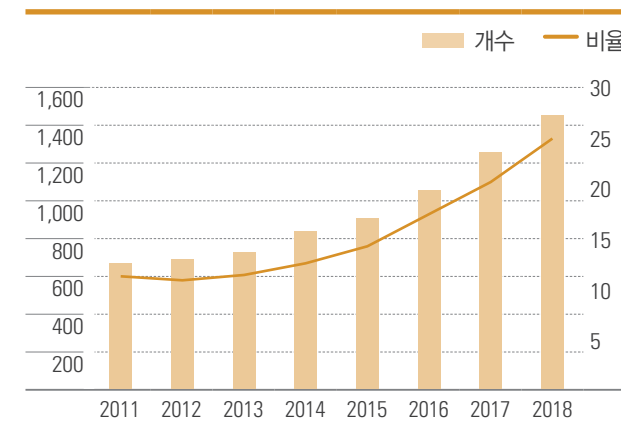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

서울시의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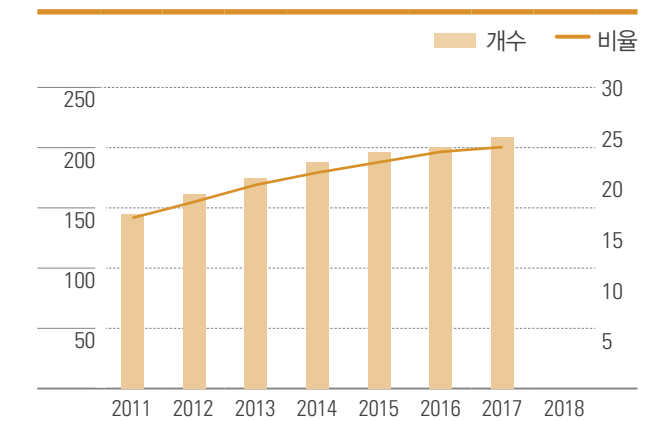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

서울시의 공립유치원 추이

단위: 개,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서울교육통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보육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서울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우리동네 보육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은 각종 보육정책 소식과 동네에 있는 보육시설 찾기, 보육서비스 예약, 우리동네 육아정보 등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특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다.

이용방법

서울문화포털 및 서울시 문화본부

- 홈페이지 | iseoul.seoul.go.kr
- 보육예약 서비스 종류

휴일보육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07:30~19:30까지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비정기적 외부 이용아동의 경우, 시간제 보육료가 적용된다.

365 열린어린이집

6개월~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365일(특정 휴일 제외) 중 연속 최대 6일까지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금액은 1시간 당 3,000원 / 1일 5만 원이며 식대는 별도이다.

거점형시간연장보육

야간돌봄이 필요한 만 0~5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지정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에서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금액은 무료이다(특정 유형 제외). 현재 9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5월부터 21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오후 5시 이후 담당 인력의 인솔하에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뒤, 서비스 종료 시 부모가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 제공 서비스

보육정보 : 보육뉴스, 육아상식, 우리동네 어린이집, 보육자료실, 추천도서 등

보육신문고 상담실 : 120 전화 상담 가능

서울시 육아정보 : 우리동네 육아정보, 우리동네 행사, 보육반장 관련 소식, 우리동네 부모소통



서울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된 품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가족사랑의날 관련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2018년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총 4,527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75.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3~5년 마다 재공인 평가를 하고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공한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은 900여 개로 민간어린이집의 절반을 차지한다(서울시 보육포털).



보육료와 유아학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학비 지원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각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 홈페이지 | online.bokjiro.go.kr
- 지원금액



영유아보육료

단위: 원

연령		종일반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만 0세	종일	454,000	485,000	354,000	485,000	60,000
	24시간	681,000	-	-	-	-
만 1세	종일	400,000	264,000	311,000	264,000	60,000
	24시간	600,000	-	-	-	-
만 2세	종일	331,000	179,000	258,000	179,000	60,000
	24시간	496,000	-	-	-	-

단위: 원

연령	맞춤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 3~5세	60,000(월)	220,000(월)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정양육수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월 10~20만 원 지급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게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월 10~20만 원을 지급한다. 주민센터 혹은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나 별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둔
가정에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첫 3개월간 221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며, 2019년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게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이용방법

아동수당

- 홈페이지 | www.ihappy.or.kr
- 간편신청 Tip
 - 1_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2_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3_ 복지포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간편 신청
 - 4_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5_ 2013.2.1. 이후 출생자로 2018년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에서 제외됐다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직권신청할 예정(별도 신청 불필요)
 - 6_ 2019년 1~3월에 신청한 경우(직권신청 포함), 2019년 4.25에 1~3월분 소급 지급
 - 7_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마을 중심 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파견하여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일제 돌봄은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이며,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만 12세의 아동을 최소 2시간 이상 필요한 만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의 대상과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 신청방법 (홈)아이돌봄서비스이용>서비스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대기
 -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완료되면 서비스이용자가 되어 신청서 작성 가능
 -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간제 서비스 종류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시간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1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종일제 서비스 종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 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지원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만 6천 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비용 차등 지원

그 외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을 보조하는 ‘기관연계 서비스’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이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함께 돌보며
양육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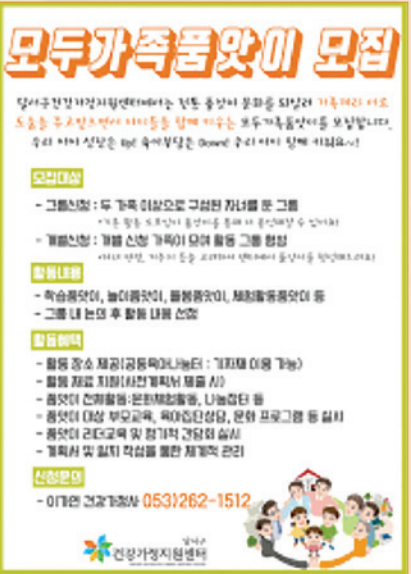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2018년 기준 16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품앗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서너 가정이 팀을 이루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학습, 취미, 돌봄 품앗이를 하는 활동이다.

서울

공동육아 및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3인 이상 부모
공동체에 지원금 지급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모집 공고 사례



출처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실내 공간이나 공원과 같은 일정한 공동육아 활동장소를 기반으로 영유아 5명 이상(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을 주 2회 이상 돌보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부모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자녀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이용방법

공동육아 및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홈페이지 | www.seoulmaeul.org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 지원 대상 :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 조건 : 최소 돌봄 아동 5명 이상(영유아 원칙,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육아모임은 3명 이상)
 - 지원 금액 : 350~1,000만 원 내외 지원(돌봄아동수에 따라 구분 지원)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지원분야 : 부모교육 및 모임, 자녀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 지원 금액 : 200만 원 이내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서울

우리동네 보육반장

육아와 관련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만능반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관리뿐 아니라 가정양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9년 기준 전국 10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25개의 센터가 자치구마다 운영되고 있다. 각 자치구의 보육기관 지원과 더불어 상담, 부모 교육, 아빠육아 지원, 육아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장난감 및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사회의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 별로 4~7명의 보육반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140명의 보육반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용방법

우리동네 보육반장

• 이용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20~3번
- 인터넷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서울시 육아정보
- 스마트폰 : '엄마와' 앱

• 상담내용

- 우리동네의 숨겨진 육아 정보가 궁금할 때
- 우이아이 키우면서 궁금할 때
- 마음이 맞는 엄마들과 육아 모임을 함께 하고 싶을 때
- 우리 동네 육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 출산, 전입, 다문화, 새터민 가정이라 동네 정보가 부족할 때



정책 제언

아동 돌봄-청소년 자원봉사 연계하여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돌봄 경험할 기회 제공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까운 동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 기관이나 활동이 제한적이며 특히 아동이나 가족 대상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 청소년 시기에 아동 발달과 돌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해, 책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의 가족 관련 기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돌봄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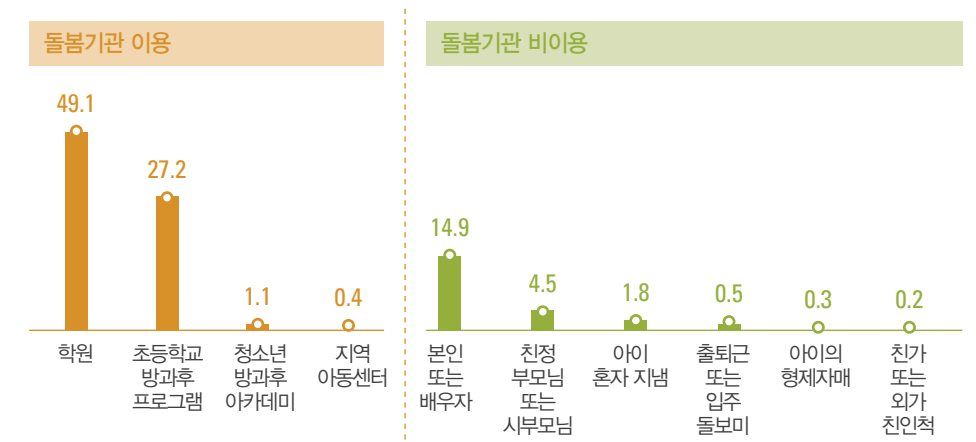
0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학교 끝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초등학생

영유아기에 어린이집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받던 아동이 초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일찍 귀가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2018년 서울시의 초등학생 중 49.1%는 방과 후에 학원을, 27.2%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14.9%,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4.5%이었다.

2018년 서울시 초등학생 돌봄기관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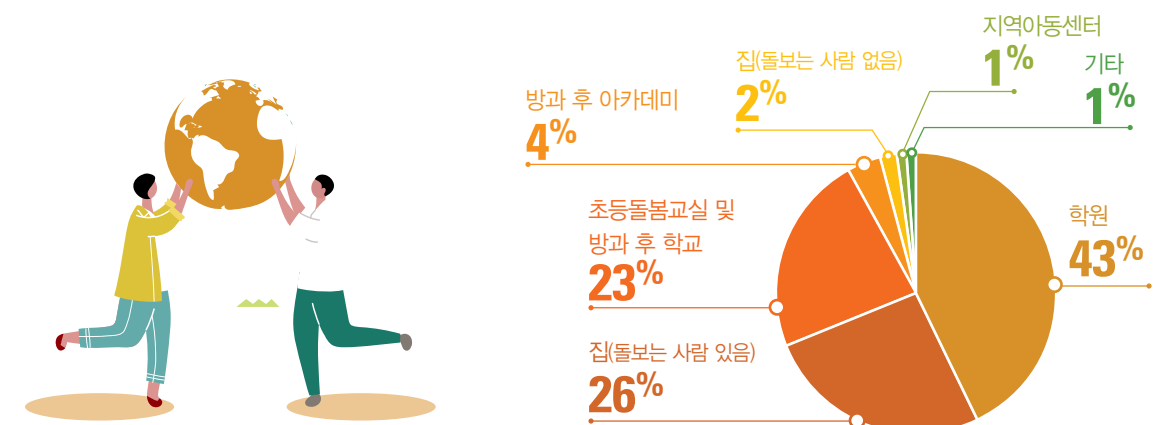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2018.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는 학원, 방학에는 집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180명의 응답자에 따르면, 방과 후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42.8%), 집(주로 돌보는 사람 있음, 26.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23.3%), 방과 후 아카데미(4.4%), 집(주로 돌보는 사람 없음, 2.2%), 지역아동센터(0.6%)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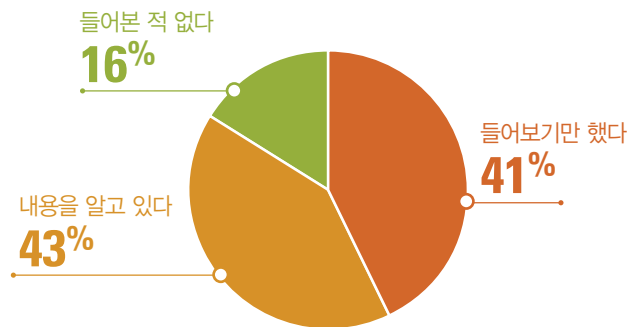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인지도 및 이용 여부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1,600명 중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68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들어보기만 한 사람은 660명(41.3%),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명(16.2%)으로 나타났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2명에 대해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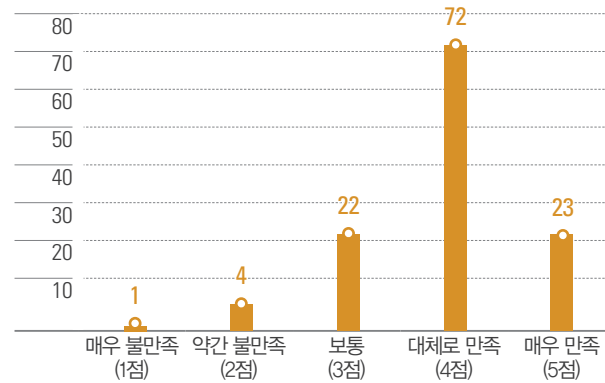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인지도

단위: %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이

단위: 명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정규수업 이후
초등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제공

서울

우리동네 키움센터

방과후 학원 대신
양질의 돌봄 제공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569개의 학교에서 1,730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했으며, 총 36,833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였다(교육부, 2019). 1~2학년에게 제공되던 돌봄교실 서비스를 2019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했다. 나이스(NES)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돌봄교실 신청, 배정, 출결조회, 퇴실 시각 및 동행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6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제공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등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공백 시간에 초등학생을 돌보는 공간이다.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에게나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18년에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센터가 시범운영되었고, 2019년 현재 90여개 소로 늘어났으며 운영시간 또한 연장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돌봄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돌봄은 물론, 간식과 교육 · 놀이 프로그램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보호,
생활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전문체험 활동과정	주중체험활동과정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주말체험활동과정	
학습체험 활동과정	교과학습과정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보충학습지원과정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자기개발 활동과정	주중자기개발활동과정	청소년들의 주도로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주말자기개발활동과정	
생활지원과정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학교밖 청소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총 450개의 센터가 있으며 월~금요일마다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상생활관리, 안전귀가지도 등 기본적인 보호와 더불어 교과학습지도, 동아리 활동, 체험/견학/캠프,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2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24개의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운영
-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은 과학, 기술, 공학, 인문 · 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통합적 교육으로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 MAKER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자 중심 활동'

출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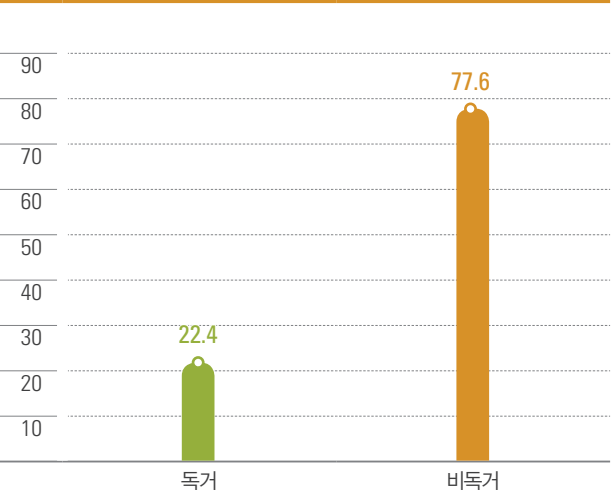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 중 독거 가구의 비율은 22.4%에 달한다.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응답자 1,847명 중 10.3%가 돌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3.2명이라고 답했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심리 · 정서적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 · 문화 활동 참여, 신체적 및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다양한 고충을 호소하였다.

서울시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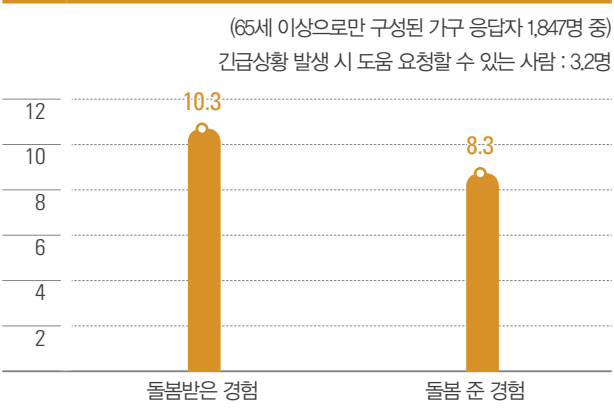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시 노인의 돌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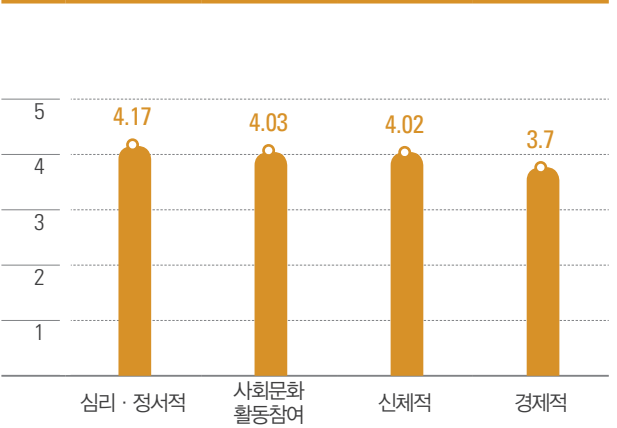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17, 일하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안 연구

노인 돌봄가족의 주요한 어려움

단위: 점, 5점 척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질 좋은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서울형 주간보호시설

서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노인 돌봄가족에게
개별여행/단체여행 제공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노인의 기본서비스부터
방문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보호하고 목욕, 식사, 간호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 중 서울시의 인증을 통과한 센터를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공인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 총 391개의 데이케어센터 중 192개(49%)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노인 돌봄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 3차례(1차 : 4~5월, 2차 : 7~8월, 3차 : 9~10월)에 나누어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사랑의 안심폰 제공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안심폰을 통해 영상통화, 동작감지센서, 긴급통화 등 실시간 안전을 확인한다.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말벗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정보제공, 기상특보 안전확인 등 - 생활교육: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연계: 소득보장, 학대예방부터 건강검진, 문화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비스를 연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등 - 주간보호서비스: 여가, 물리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단기가사서비스: 식사도움, 청소 및 세탁 등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사랑의 안심폰	- 이동감지센서를 부착한 단말기를 독거어르신에 보급 - 화상모바일폰을 활용하여 자택의 실시간 상황 파악 가능 - 이동감지센서를 활용하여 귀가여부 확인 및 침입자 감시 - 휴대가능한 단말기로 장소에 관계없이 말벗서비스 제공

출처 복지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장기요양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등급을 판정하는데, 1~5등급의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진, 예방,
주간 보호, 치료,
가족 지원 제공하는
통합 센터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서비스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77개소가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센터 제공 서비스

상담	기초·심층 상담 후, 치매환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센터 방문 혹은 전화 예약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 콘텐츠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쉼터	낮 시간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교류 증진, 인지건강 프로그램(작업, 원예, 음악, 미술, 운동치료 등) 제공
치매가족 지원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자가 1:1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제공. 돌봄부담 분석에 따른 제공 서비스 연계

출처 보건복지부, 2019. 치매정책 사업안내

서울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6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빈곤, 우울, 가족갈등, 고독, 역할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내방 및 온라인, 24시간 전화 상담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방법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seoulfriend.or.kr
- 전화 | 02-723-9988
- 주소 |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에스케이 허브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 무료 상담 서비스
 - 내방상담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 전화상담 : 위 번호(02-723-9988)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 온라인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3일 이내로 답변 제공



해외
사례

네덜란드 치매마을



DE | EN | NL

hogeweyk



Hogeweyk

Bezoek als externe prikkels

PLATTEGROND & LOCATIE

HEEMRAADWEG 1
1382 GV WEESP

PLATTEGROND

THUIS

De Hogeweyk. Wonen in leefsferen. Een afspiegeling van herkenbare leefstijlen in onze huidige samenleving.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De Hogeweyk)

네덜란드 호그벡은 치매환자들이 시설이 아닌 환경에서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환자 대신 거주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간은 치매노인의 취향을 존중하여 만들어졌으며, 각 가정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

치매에 걸리기 이전처럼 생활하며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거주자들의 노멀라이프를 지지한다. 거주자들도 환자복을 입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평상복을 입고 지낸다.

네덜란드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05

혼자 살아도 든든한 서울



- 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맺기
- 2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
- 3 맞춤형 경제생활 지원



05 혼자 살아도 든든한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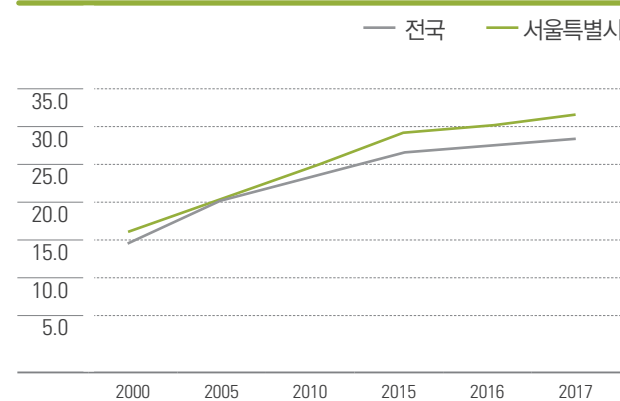
0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맺기

다양한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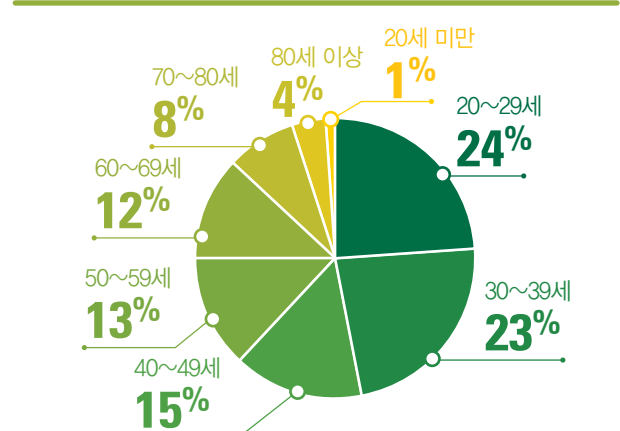
서울에는 총 1,180,540명의 1인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31.0%에 해당한다(통계청, 2017. 인구총조사).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6.3%에서 2017년 31.0%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서울시 1인가구는 20대가 2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40대 순이다. 성별로 보면, 서울시 1인가구 중 여성은 52.4%로 절반을 약간 넘는다. 1인가구의 혼인상태도 다양하다(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서울시 1인가구 중 미혼의 비율은 59.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는 각각 18.3%, 13.8%였다. 1인가구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8.1%였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2017. 인구총조사

서울시 1인가구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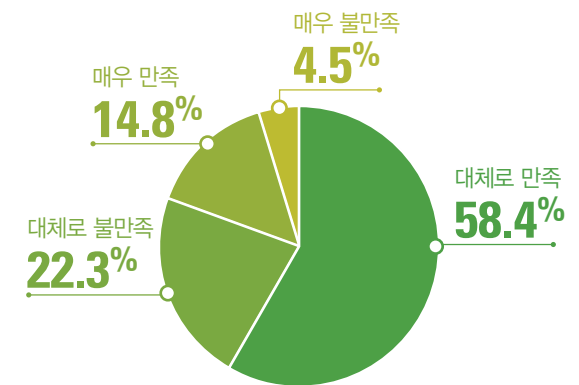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1인가구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중 73.2%는 1인가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가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1인가구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1인가구 삶의 만족도

단위: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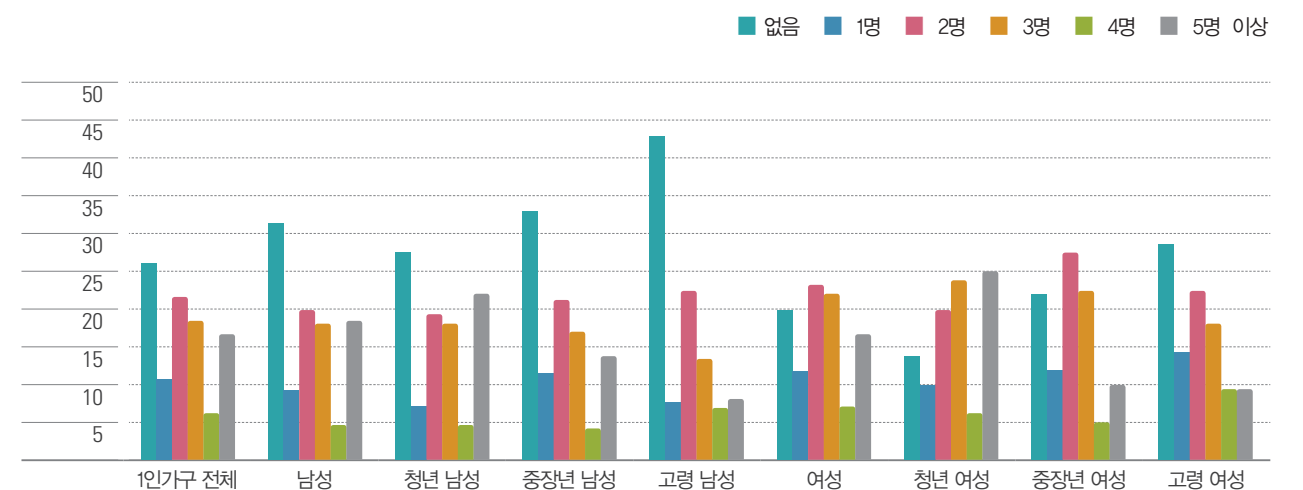
사회적관계망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1인가구 중 현재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5.8%였다. 대화 상대가 없는 사회적 고립은 청년보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여성보다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높았다.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대상은 주로 친구나 이웃(65.1%)이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1인가구의 고민상담 상대 인원수

단위: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1인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234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와 같은 10개 문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를 5점 만점으로 질문하였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들다'가 평균 3.57점,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가 평균 3.32점,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가 평균 3.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다고 보고했으며, 안전, 주거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1인가구에 대해 종합적, 계획

적 시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 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1인가구 복지지원사업에는 주거복지사업, 복지격차해소 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가구 프로그램

1인가구의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망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인가구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1인가구탐구생활(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YOLO 놀러와요(강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돕는 '나도 혼자 산다(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장년 1인가구 남성 소셜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다 함께 차차차(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1인가구 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강남구	청년 1인가구 사업 '식구' 의·식·주 일상생활 역량강화 교육 (정서적 독립을 위한 심리검사, 식단 짜기 부동산 계약 등)
금천구	4050! 브라보 꽃중년 노후 준비 및 건강관리 방법 교육
양천구	여행(여성들의 행복한 라이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셀프 인테리어&집수리 및 정리수납 교육
종로구	Single한 삶, 병글하게 청년 1인가구 정서적 안정감 지원을 위한 심리검사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종량구	낭랑(朗浪)한 1인 생활 청년 1인가구 의·식·주 일상생활 역량강화 교육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살림법, 초간단 요리 만들기 등)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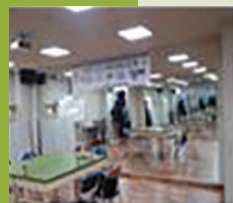
1인가구가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

서울시는 지역사회 내 1인가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 관리하며 정보공유 및 사회적 관계 맺기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금천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4개구, 5개소에서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유부엌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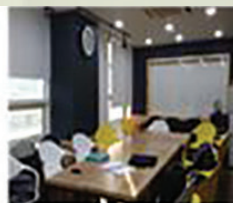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금천구 청춘빌딩



시흥4동 이음터



장위동 다다익선



은평 청년새싹공간



변동 사랑방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 서울시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

new!

서울

1인가구 생활정보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생활정보 안내서

1인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소책자이다. 성별, 연령별, 생활영역별 맞춤형 종합생활정보를 제공한다.



02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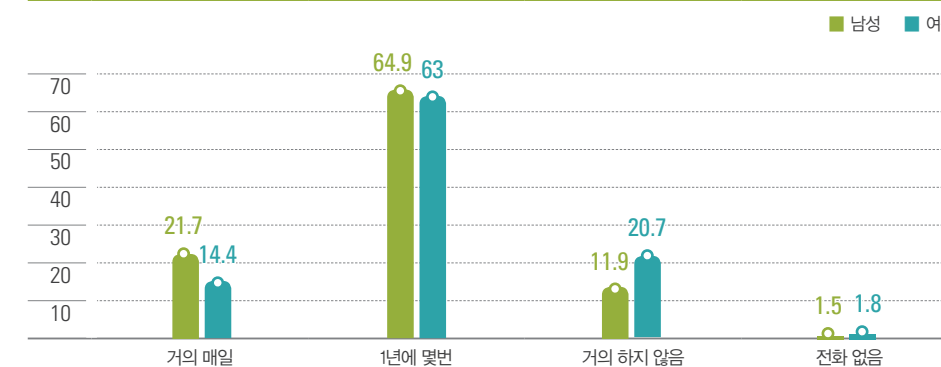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1인가구

서울시 1인가구의 18.1%는 주거지와 관련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주거와 관련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주거지 불안 또한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의 32.3%는 CCTV, 출입구 보안시설, 방범창 등 주거지 내부의 안전시설 미비를 주거지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골목길, 주택주변, 유흥업소 등 주거지의 위치(13.7%)를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지 불안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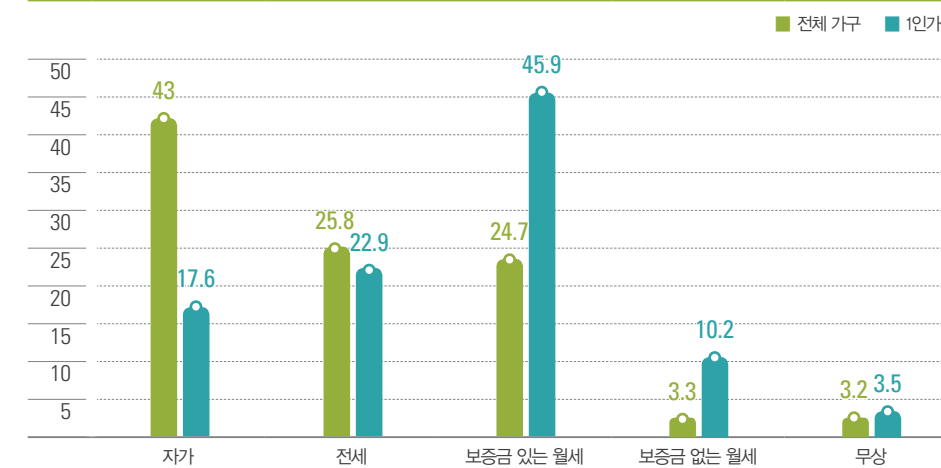


주거빈곤 1인가구의 증가

2017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는 43.0%인데 비해 1인가구는 17.6%에 불과했다. 전국의 전체가구에서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가구 비율은 2000년 31.2%에서 계속 증가해 2015년에는 37.2%였다(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 현재주택 점유형태

단위: %



출처
서울시, 2017. 주거실태조사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여성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

밤길 지켜주는 호신앱

서울 서울시 안심이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25개 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앱을 연계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이다. 나홀로 귀갓길이 두려울 때 안심이 앱을 켜고, 위기상황이 오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통합관제센터로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통합관제센터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CCTV나 전송 영상 등으로 위험상황이 확인돼 비상상황으로 전환되면 경찰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심이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심이 이용방법



출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안전한 밤길을 돕는 귀가 동행 서비스

위기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24시간 여성 대피소(편의점)

택배기사를 만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에서 택배수령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안심이 앱이나 자치구 상황실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청할 수 있다.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와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노란 근무 복장 스카우트를 만나 신원을 확인한 뒤 동행한다.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을 활용한 24시간 여성 대피소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한다. 이들 지킴이집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2018년 10월 기준 총 1,0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안심택배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는 서비스이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심마을은 여성 대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1인가구 SS존 조성,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 조성, 지역적 특성 및 여성안심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여성안심행복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여성안심마을 사업 예시



여성안심 환경조성
(강동구)



여성안심귀갓길
(서대문구)



안심비상벨 설치
(강동구)



여성안심 거울길
(동작구)

출처 서울시, 2019.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운영계획

여성 1인가구 및 점포에 방범장치 지원

new!

서울 **SS존 (Safe Singles Zone)**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SS존 지역으로 선정, 여성 1인가구와 점포에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귀갓길 등 여성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여성 1인가구에는 ‘여성안심 홈’ 4종 세트(디지털 비디오창,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경찰서와 구청 CCTV 관제센터까지 3자 통화가 가능한 무선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안심 홈 4종 세트



디지털 비디오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출처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임대주택 공급

(청약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QR코드 참조)

유형별 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공급면적 및 임대기간	QR 코드
행복주택	-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 - 주거급여 수급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신청가능	- 전용 19㎡~45㎡ 이하 - 임대의무기간 : 6년(젊은층) ~20년(고령자 등)	
서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대기간 : 최장 6년(신혼부부는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최장 10년)	
희망하우징	대학생	-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 - 임대기간 : 최장 4년	

유형별 임대주택	대상 및 내용	공급면적 및 임대기간	QR 코드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서민계층	- 전용 59㎡ 이하 - 임대의무기간 : 30년	
공공임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 전용 84㎡ 이하 - 임대의무기간 : 50년(특별), 20년(일반)	
영구임대	소득1분위 이하 생계·의료수급자	- 전용 25㎡~49㎡ 이하 - 임대의무기간 : 50년	
매입 임대	- 저소득층 - 민간 재개발 주택,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재개발임대 : 전용 59㎡ 이하, 임대의무기간 : 50년 - 다가구, 원룸매입임대 : 전용 84㎡ 이하, 임대의무기간 : 20년	
전세 임대	- 저소득층 - 전세금 지원형 임대	- 전용 85㎡ 이하 - 최대 20년	
장기전세 (Shift)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 전용 129㎡ 이하 - 임대의무기간 : 20년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	- 전용 60㎡ 이하 (2인이상 : 85㎡ 이하) - 임대기간 : 최대 6년	
사회주택	-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임대기간 : 최장 6~10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유형	대상	내용	QR 코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2,500만 원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신청 가능 1_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진입예정인 자 2_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_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4_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주거공유

유형	대상	내용	QR 코드
서울 한지붕 세대공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어르신 - 서울시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 - 신청 어르신에게 방 1실당 100만 원 이내 환경개선 공사 비용 지원	

서울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지원센터는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을 도와주며,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사회복지기금 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기존 10개였던 지역 주거복지지원센터가 2018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으며, 중앙 주거복지센터도 개소했다.

서울

청년주거포털

청년에게 주거정책
정보 및 입주가능
주택찾기 서비스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비교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절차/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접수기관** |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1599-0001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http://nhuf.molit.go.kr/>) 1566-9009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housing.seoul.kr)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매물의 현재 상태와 임대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주거포털



출처 청년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7월 31일 출시 당시, 가입대상이 만 19~29세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

이용방법

프랑스, 두 세대가 같이 주택

프랑스



Ensemble 2 Générations

프랑스의 '두 세대가 같이(Ensemble 2 Générations)'는 세대 간 동거를 위한 공동 주거지를 만들어 사회가 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이다.

빈방이 있는 노인과 학생을 연계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상호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돕는다.

빈방이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용하고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싶은 60세 이상 노인과 세대 간 가치를 존중하는 18-30세 싱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프랑스의 '두 세대가 같이'나 서울시의 '한지붕세대 공감'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괴팅겐' 지역, 미국의 '노인-청년 주택공유제', 일본의 '에이지믹스(age mix)주택', '세대 교류형 주택', 스웨덴 '연령 통합형 그룹 홈', 캐나다 캘거리주의 '홈 셰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출처 <http://ensemble2generations.fr/>

1인가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서비스 주체가 다양하여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인가구를 위한 수요자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예: 앱, 포털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한 곳에 모으고, 연령과 성별, 서비스 영역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비스 이용방법은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인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 누구나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서울시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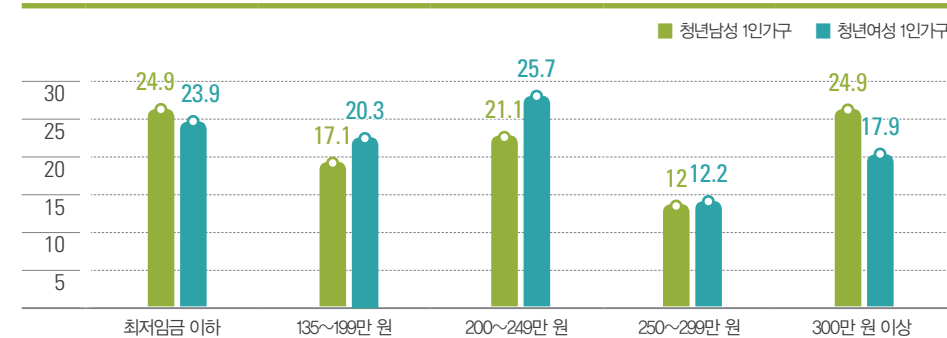
맞춤형 경제생활 지원

1인가구의 불안정한 경제상태

2017년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63.3%로 가장 높다(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1인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8%로 높지만, 상용직의 비중은 63.2%에 불과하다. 1인가구 중 31.6%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수준이다. 고령 1인가구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지만, 청년 남성 1인가구의 24.9%, 청년 여성 1인가구의 23.9% 역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월평균소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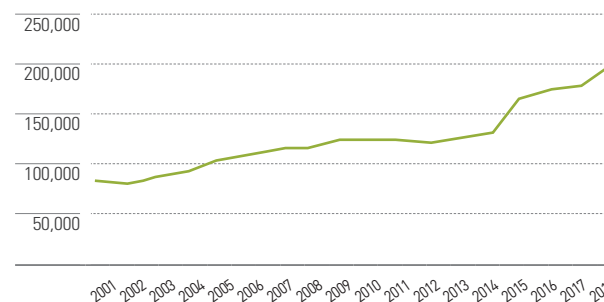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이는 지원 대상의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수적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66.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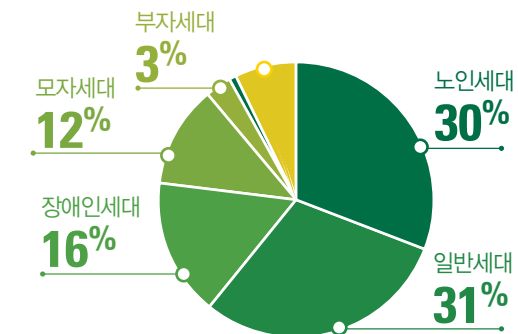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세대구분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7

김복순(2019).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노동리뷰, 167, 6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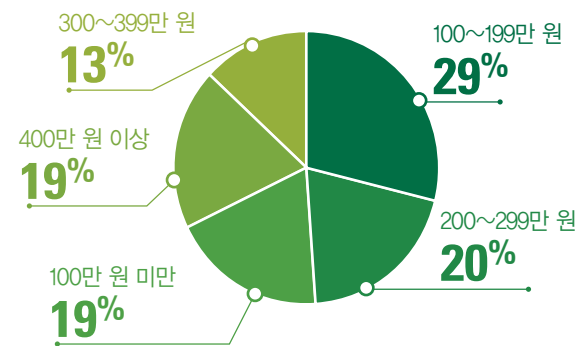
근로빈곤 위험에 처한 청년

2017년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7%, 3.5%이다(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8년을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만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9.5%이며, 청년 고용률은 42.7%이다(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9세)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8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르고,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하다(김복순, 2019).⁷ 이는 청년 중 상당수는 일해도 여전히 빈곤한 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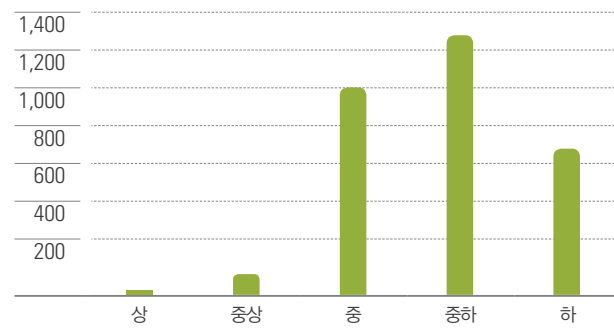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빈곤(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노인은 46.3%이다(OECD, 2015). 소득과 함께 주거 또는 자산 차원에서도 결핍을 겪고 있는 다차원 빈곤 노인들은 약 21%이다.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노인 3,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48.2%에 달했다. 응답 노인의 64.1%는 경제적 생활수준이 '중하' 또는 '하'라고 응답했다.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35.1%였고,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었다.

서울시 노인의 월평균 가구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서울시 노인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재산 급여(60만 원)와 장제급여(75만 원)를 지원한다.



서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물품 및 현금 지원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2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한다.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과 같은 직접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와 같은 간접비를 인정하여 자치구 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생애 1회 지원 사업으로, 한 차례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다.



서울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의 성공취업을 위한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성공취업에 필요한 상담, 멘토링, 취업특강부터 스터디룸 무료 대여까지 취업준비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만 15세~39세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서울형 뉴딜일자리

경력도 쌓고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돕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이다. 월 최대 임금 215만 원, 시급 10,15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최대 23개월 간 안정적으로 근무 가능하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200시간의 취업교육과 자격증 응시비용을 지원한다.

서울

50+ 사회공헌일자리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일자리

50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이다. 은퇴한 장년층이 학교, 복지시설, 지역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르신 사회활동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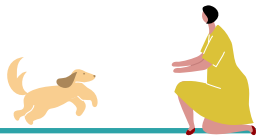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부록

- 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 2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0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_ 서울지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두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센터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1577-9337	www.liveinkorea.kr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gangnam.familynet.or.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	02-458-0622 02-458-0666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 3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02-803-7747	geumchfc.family.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nowon.family.or.kr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or.kr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0760	ddmhfc.family.or.kr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층, 3층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5, 우성3단지@ 304-107	02-599-3301 02-599-3301	dchfc.family.or.kr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B2	02-3142-5482	mapo.family.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02-322-7595	sdmfc.family.or.kr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흥제1동 자치회관 2층	02-730-7530	
서초구	서대문구 증가로 32ㄱ 48, 연희성원아파트 관리동 2층	02-375-7531	seocho.family.or.kr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02-576-2851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02-6919-9745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초구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4층	02-2155-8281	seocho.family.or.kr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ng.family.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02-3395-9447	sdfc.family.or.kr
		02-3395-9445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sbfc.family.or.kr
		02-922-3304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or.kr
	송파구 마천로 41길 12 1층	02-403-3844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408호	02-430-3844	
	송파구 토성로 19길 37	070-7459-3844	
양천구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4층	02-2065-3400	ychc.family.or.kr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02-2699-6900	
영등포구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02-2678-2193	ydpfc.family.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층	02-797-9184	yongsan.family.or.kr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or.kr

2_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설립되었다. 자치구별로 이원화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 및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다. 시간제 보육,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통해 지역 내 육아자원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부모에게 연결하며, 보육반상회를 통해 육아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 또한 마련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24 4층	02-772-9814~7	seoul.childcare.go.kr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72길 7 3층	02-546-1735~7	www.gncare.go.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6길 16	02-486-3516	www.gdkids.or.kr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02-944-7480~1	childcare.gangbuk.go.kr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2길 50	02-2064-2730~2	www.gskids.or.kr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2층	02-851-2834	www.gwanak.go.kr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02-467-1827~9	www.gjcare.go.kr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02-859-5678	guroccic.guro.go.kr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www.happycare.or.kr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www.nwsgcc.or.kr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12길 28	02-3494-3341~2	www.doccic.go.kr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62	02-2237-5800	ddmccic.or.kr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1 3층	02-823-4567	www.dccic.go.kr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02-308-0202	www.mcic.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02-3217-9550	www.sdmccic.or.kr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347길 46	02-598-9340	youngua.seocho.go.kr
성동구	성동구 남계로 160	02-499-5675	www.sdtoy.co.kr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	02-918-8080~2	bomun.gongdan.go.kr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02-430-7192	spchildcare.or.kr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02-2646-7790~1	www.ychccc.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02-833-6022	ydpccic.or.kr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02-749-9673~4	www.ysccic.or.kr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02-351-3629, 3630	www.epmjuccic.co.kr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3층	02-737-0890	www.jnccic.or.kr
중구	중구 다산로32길 5 3층 사무실	02-2263-2626	www.jgkids.or.kr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www.jccic.or.kr

3_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seoulhanbumo.or.kr

2009년에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부모의 가족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

주소	구로구 가마산로 272 서울시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전화번호	02-861-3020

4_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

서울지역 직장맘을 위한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역량강화교육 등 직장맘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운영하여 노무사의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남권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02-852-0102	www.gworkingmom.net
서북권	은평구 통일로 684, 21동 2층	02-308-1220	epworkingmom.tistory.com
동부권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1층	02-332-7171	www.workingmom.or.kr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번 다산콜 + 내선번호5번	국내최초 전문가 전용콜 서비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들의 무료상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및 노동권 전반
-----------------------------------	---

5_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성평등한 일·가족양립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그리고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소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5층 가족팀
전화	02-810-5044
이메일	swfcenter@seoulwomen.or.kr

6_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내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기관(통칭)은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89 POST TOWER 7층
전화	02-590-1900
이메일	swrd.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	nambu.seoulwomanup.or.kr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dongbu.seoulwomanup.or.kr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972-5506	bukbu.seoulwomanup.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02-2607-8791	seobu.seoulwomanup.or.kr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	jungbu.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양재대로 1390 신성빌딩 4층	02-475-0110	gd.seoulwomanup.or.kr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02-980-2377	www.womanjob.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층~5층	02-886-9523	www.kwoman.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빌 2층	02-867-4456	www.kurowoman.com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	www.job365.or.kr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02-921-2020	www.job2060.or.kr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 이수텐빌딩 2~5층	02-525-1121	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해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플라자 3층	02-6929-0011	seocho.seoulwomanup.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무학로2길 54 신방빌딩 1층	02-3395-1500	sd.seoulwomanup.or.kr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중대로9길 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61	02-858-4514	www.ywcajob.or.kr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	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02-389-1976	www.epwoman.or.kr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투에프코트빌딩 7층	02-6929-0002	kangnam.seoulwomanup.or.kr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www.sbwomen.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02-3409-1947	jungnang.seoulwomanup.or.kr

7_서울시50플러스재단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만 50~64세의 중장년층이 50세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 교육, 취업/봉사 등을 통한 재도약 정보, 제2인생 컨설팅, 재무/법률/여행/취미 등의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본부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02-460-5050	50plus.or.kr/org/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8동	02-460-5151	50plus.or.kr/sw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02-460-5250	50plus.or.kr/sc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02-460-5350	50plus.or.kr/ssc/index.do
노원50플러스센터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50plus.or.kr/nwc/index.do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50plus.or.kr/dsc/index.do
동작50플러스센터	동작구 노랑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50plus.or.kr/djc/index.do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여의도복지관 3층	02-2635-5060	50plus.or.kr/ydp/index.do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02-394-5060	50plus.or.kr/sdm/index.do
성북50플러스센터	성북구 지봉로24길 26 3-4층	02-923-5060	50plus.or.kr/sbc/index.do

8_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제공한다.

주소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동 3층 317호
전화	02-385-2642
이메일	02-354-9280

9_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dfsc.or.kr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며, 동료상담 서비스와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얼빌딩 3층 304호	02-6949-3133~4	seoul.dfsc.or.kr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밤고래로1길 10 826호	02-3412-8551	gs.dfsc.or.kr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발산로40 강서도매시장 내 4층 관리동 7호	02-6956-1991-2	gs.dfsc.or.kr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5층	02-456-0708	gj.dfsc.or.kr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탑골로2길 59-9 2층	02-802-0502	gc.dfsc.or.kr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행정지원센터 B101	02-907-9633	db.dfsc.or.kr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802호(답십리동, 클래식타워)	02-2249-1717	ddm.dfsc.or.kr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8 삼라마이다스 202호	02-303-3618	mp.dfsc.or.kr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1층	02-394-4430	sdm.dfsc.or.kr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효령로55길 22 208호	02-597-8339	sc.dfsc.or.kr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118 라성아카데미타워 1122호	02-6929-2456	sd.dfsc.or.kr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미주빌딩 403호	02-357-3345-6	ep.dfsc.or.kr

2019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시민 총 1,600명을 조사하였다. 성별, 연령대별(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64세), 거주권역별(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동일하게 표집하였으며, 연령대와 거주권역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할당표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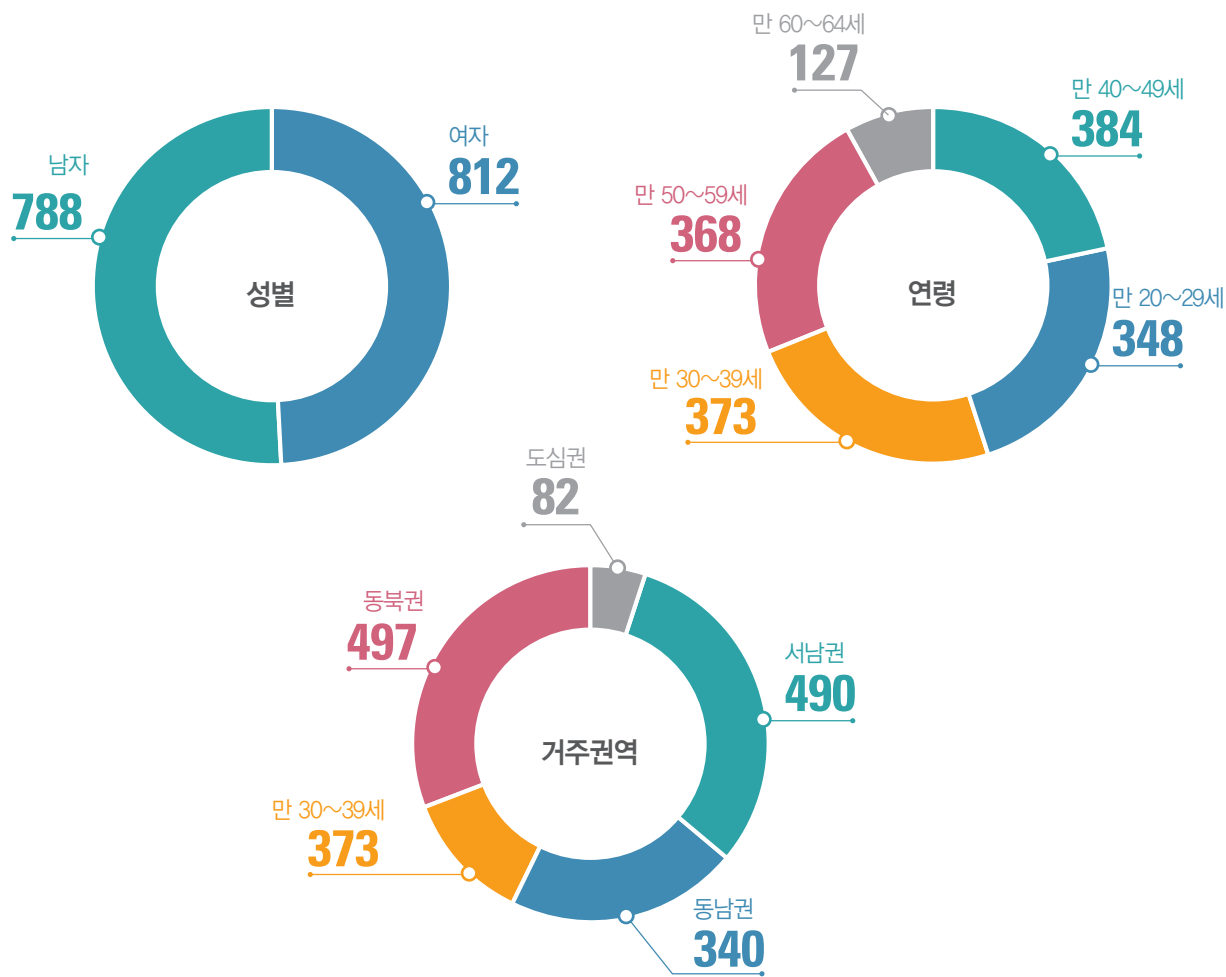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2019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 구성원에게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내용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및 돌봄,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행일 2019년 11월

판명 · 판수 초판 1쇄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편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총괄팀

집필진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권소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아영, 오상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행처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318-8167

디자인 · 인쇄 **AandF** communication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이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758-01

ISBN 979-11-6161-745-9